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의 결실의 계절을 맞  
아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보  
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  
암음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세계만방  
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  
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  
우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시편 75편 1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1월 17일 (토) 제 170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하나님! 모두가 감사입니다...

## 2018년 추수감사주일 맞아 청교도와 초기 대통령의 선언 및 실제적 감사체험 프로그램 소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예배의 가장 중심 요소임을 생각 할 때,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누구신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기억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모두가 감사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인생의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잔잔하게 솟아나는 그러나 끊임없이 차올라오는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 많은 물소리처럼 그렇게 울려 퍼지는 기도를 드려보자.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가슴 밑바닥의 감사를 끌어올려 외쳐보자. 그 때 비로소 우리는 숨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1620년 12월 11일, 유럽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 동부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된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의 종교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오게 됐지만, 미국에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한 첫 겨울, 혹독한 추위와 낮은 환경으로 인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102명 이민자 가운데 46명이 그해 겨울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해 가을에 나름대로의 결실을 보게 됐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 그 해 거둬들인 농산물과 사냥으로 잡은 칠면조를 나눠 먹으며 감사의 축제를 벌였다. 이 감사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1789년 10월 3일, 전 국민이 감사절을 지킬 것을 공포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과 힘의 겸손히 간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들 미합중국 백성들은 오는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헌신하기를 추천하며 이에 서명한다."

"한 해가 끝나가는 지금, 넓은 들판과 푸른 하늘에는 축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내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들, 바다를 떠다니는 선원들, 타국을 여행하는 미국인 모두가 11월의 마지막 주(후에 넷째주로 변경)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경건하게 기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전쟁 중 사망한 병사의



부인들, 고아, 그리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 추수감사절 제정에 서명하면서 발표한 선언문의 일부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시련을 겪었지만 가장 힘든 시기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처음 정착했을 때와 남북전쟁 때였다.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들은 낮은 땅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다. 남북전쟁은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사려졌던 비운의 시기였다.

초기 정착의 험난한 시기와 암울했던 전 시 상황에서, 실의와 좌절이 계속됐지만 감사의 마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였다. 링컨의 추수감사절 선포는 분열

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가족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면서 미국을 지탱하는 가장 고귀한 정신이 됐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미국 내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단 하루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의 벨트사이즈가 늘어나듯이 이날을 준비하고 기념하는 것은 남은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존 웨슬리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추수감사절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생각할 수 없으며 거의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다."

<4면으로 계속>

### 감사절 시



## 2018년 추수감사를 지내며



백승철  
(시인, 사모하는교회 담임목사)

노을 진 하늘 벽에 걸린 오늘 하루  
특별한 감사의 언어로  
흘러간 지난 계절을 되돌리며  
눈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남은 외투 벗고 십자가 밑에서  
무릎으로 그 말씀 담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그 길 따라  
한 걸음씩 옮기며  
하나님 계절에 열매로 익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되돌려 기도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기억에 지워질 수 없는,  
넘어지거나 모서리 끝 바람에 흩날릴지라도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며 그 기억으로 인해  
하늘 길로 세상 품은 넉넉한 감사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채우실 숨소리로  
서린 가슴에 내려앉는 한 잎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노래하며  
소리 없이 세상 적시는 오직 하나 시편입니다



2면

시론  
민정엽 목사



3면

감사절 설교  
김성국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일 박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렘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평상 가격만큼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액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급 주문 제작, 탁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 OPEN HOUSE

for Recruiting New & Transfer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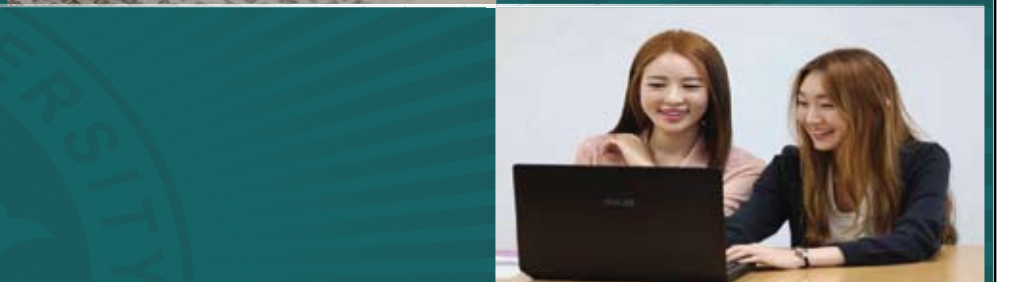
## Saturday, Dec. 1, 2018 12 - 3PM

\$100 Application Fee Waived for Attend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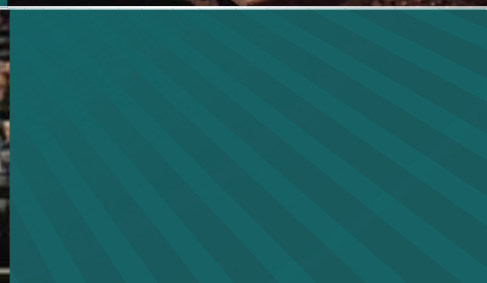
- Religion** D.Min. Doctor of Ministry  
M.A. / M.Div. Master of Arts in Biblical Study / Master of Divinity  
B.A. Biblical Studies / Christian Education
- Music** M.A. / B.A. Classical Music / Praise Ministry & Contemporary Music
- Business** M.B.A.  
B.A. General Business, Legal Administration, Sports Management
- Early Childhood Education** B.A. / Certificate Program
- ESL** I-20 / Certificate Program
- Online** Religion / Business
- College Athletic Teams** Men & Women's Soccer / Baseball / Men & Women's Basketball / Women's Track and Field



Design your dream and vision at Bethesda University!



www.buc.edu



Financial Aid | Veterans Benefit (Chapter 31, 33 & 35) | Scholarships | SEVIS I-20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Tel: 714.517.1945, Email: admissions@buc.edu





# 승자도 패자도 없다...분열만 있을 뿐

## 세계 언론, '2018 미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 내놓아'

“민주당 바람이 어느 정도 불긴 불었는데, 태풍은 아니었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과 공화당의 상원 유지로 끝난 2018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중 하나로 ‘블루 웨이브(blue wave)’의 규모를 진단한 뉴욕타임스(NYT)의 결론은 이렇게 요약된다(Democrats Capture Control of House; G.O.P., Holds Senate). “오늘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헌법이 규정한 대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복원됐다는 점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낸시 펠로시(78)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6일 선거 승리 축하 행사에서 이렇게 말

했다. 한마디로, 미국 일방주의,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즘’이라는 극우 정치 성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복원됐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방헌법,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의회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이 나아갈 길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권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이기에 정치권은 선거 결과를 고려했다. 또다시 2년 뒤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 ‘민주당 바람, 태풍은 아니었다’ 행정부 견제와 균형 복원

우선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 지구촌의 관심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1월 4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중간 선거가 어쩌면 근래에 실시된 중간선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This midterm election is like no other in a generation).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중간선거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



단인인 트럼프 정권을 창출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이코노미스트는 보수의 ‘극단화’는 공화당 자체의 문제를 넘어 미국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위기이기에, 지체 없이 돌아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는 반대파만큼이나 트럼프의 지지층이 꽤 견고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민주당이 트럼프의 지지층에 균열을 내려면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

### 트럼프, “널리 증오 받고 우려의 대상이지만 또한 지지층들에게 깊이 사랑받는 인물” 재확인

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은 반목과 질시로 양극화된 양상을 보여 왔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의회 차원의 견제를 받게 될 수 있어, 어느 정도 정치적 간격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중간선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의 개혁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상식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품성과 인격을 가진 리더가 이끄는 보수 정당으로서 개혁이 있어야만, 한때 모든 이들이 탄복했던 미국 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6년,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즉 보수 정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바로 정치에서 중요한 가치인 ‘중용’을 종종 망각했기 때문이다. 역대 보수

주의 정권은 선거 때 지지자들에게 내건 ‘약속’을 집권 후 거의 지켜내지 못했다. 이념적 선명성에만 집착하는 태도로는 미국의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직감한 정권들은 늘 ‘타협’과 ‘중도’를 택했다. 그러나 선거 국면이 돌아오면 보수정치의 주류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급격히 ‘우회전’을 하며 다시 지지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스스로의 정책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커녕 타협과 중도를 비판하며 이념적으로 초강경한 목소리를 내기에 바빴다. 바로 이러한 한계가 기존 정치의 공식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는 이

NYT 칼럼니스트, 다니엘 매카시는 트럼프가 “널리 증오 받고 우려의 대상이지만 또한 그는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깊이 사랑받는 인물”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Trump Was Not Repudiated, He Was Rewarded.: The president made the midterms a real battle instead of a running retreat. He is widely hated and feared, but he is also much loved as a champion of his voters).

(4면으로 계속)



## 시론

### 감사는 명령이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공금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참된 신자는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신자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신자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막상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말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고 있다. 믿음의 초보자들은 “만일(If) 감사”를 한다. “만일 이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다.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은 “때문에(because) 감사”를 한다. “이런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감사”를 한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이 좋으니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으셨다. 감사를 권면하지도 않으셨다.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첫째는 우리는 피부로 와 닿는 은혜에는 감사하지만 조금만 거리감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을 받았거나 병에 걸렸는데 극적으로 치유를 받는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에 대해서는 별 감동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닿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저절로 느껴지지 않는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비로소 깨달아지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셨다.

둘째는 우리가 헛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감사치 못하기 때문이다. 대개 부자집 아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넉넉한 부를 당연시하고 부모가 조금만 인색하게 하여도 짜증을 부리기 일쑤다. 그러나 가난한 집 아이들은 조금만 부모가 용돈을 주어도 큰 고마움을 느낀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를 본 적이 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 인민들의 생활은 행복하여야.”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글이지만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셋째로 지금 어려운 일의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받으면 감사할 줄 모르기에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신다. 중국에 처음 선교를 갔을 때 동료 선교사의 아내가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불평하였다. 그러던 어느 한여름에 그 흙탕물이 끊어져 버렸다. 거의 일 주일 동안 수도물이 나오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화장실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다가 역시 흙탕물인 수도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이라도 얼마나 반기웠는지 그 감격을 글로 써서 가슴 찡하게 만든 적이 있다. 흙탕물이라도 감사하다면,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서부는 사막지대이고 오랜 가뭄이 계속 되는 상황인데도 수도물만은 항상 팔팔 쏟아지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물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도 해야겠지만 성경은 감사의 명령 이전에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뻐할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신앙을 가진 것이야말로 삶의 최대 기쁨이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인해 온갖 축복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는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놀라운 특권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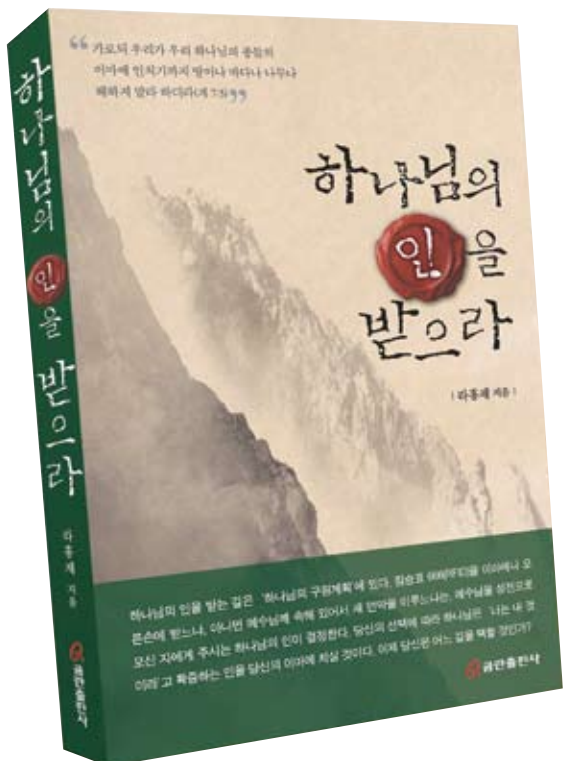
둘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를 평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한다. 의사의 실수로 생후 6주 만에 실명하여 평생 맹인으로 산 한니 크로스비는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은 곡을 작사한 사람이다. 그는 일생 동안 영감 넘치는 8,500여 곡을 작사하였다. 그가 한 말이다. “오, 나는 비록 볼 수 없으나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찬송가는 감사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고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감사절을 맞아 더욱 감사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본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 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 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 하나님의 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 후 POWER POINT와 모든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 588-2934 / (917) 968-1024



# 감사절 설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감사하고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곡백과, 하늘과 땅, 저 들과 산과 물 등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때를 맞추어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밖에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찾은 감사입니다.

사람마다 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그냥 텅텅이 하루씩 한 해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를 찾기 전에 그 인생의 목표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았었습니다. 자기가 박수받기를 원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께서 목표로 삼았던,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변치 않는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삶을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감을 위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목표를 가진 삶, 그리하여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 1.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열매에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각 열매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좋아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사람의 기본이요 뿌리입니다. 이 기본, 이 뿌리부터 좋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기본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기본은 무시하고 좋은 열매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기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본을 무시한 날림공사 건물은 언젠간 허물어지면서 그 만든 이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이 그 법안에 서명한 뒤 바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어 크게 망신을 당한 일이 있

기분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시다.

### 2. 임재를 갈망하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 하나님께 영

에 없는데 어찌 그 집에서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영광은 없

재를 교회 안에서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32절). 다양한 사람, 다양한 민족을 품을 수 있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탁월한 삶의 목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 3. 복음을 증거하라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둘째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며, 셋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늘 남에게 피해만 주며 사는 사람이어서 거미와 같은 사람이고,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 마이너스(minus) 인생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곧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도 이익도 안 주는 자기 위주의 사람이어서 개미와 같은 사람이고, 이퀄(equal) 인생입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 곧 꼭 있어야 할 사람은 남을 도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어서 벌과 같은 사람이고, 플러스(plus) 인생입니다.

스스로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분명히 평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자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았으니 플러스 인생을 살았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을 증거 하는 사람,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삶, 곧 플러스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 하는 이유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 하는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환경, 건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감사가 있었으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음, 임재 갈망, 복음 전파 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들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목표를 가진 바울은 감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목표, 이런 목표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한 없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갖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 인생의 목표를 찾은 감사 (고린도전서 10장 30-33절)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습니다. 기본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기본이 든든하면 그 위에 멋지고 견고한 건물을 세워 모든 이의 찬탄을 자아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Back to the Basic”이 있어야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부터 가려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바른 기본 위에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기본부터, 근본부터 바뀌어 이전과는 다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옳은

공이 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든 마한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집

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의 중요한 전제는 열방을 향한 열린 마음입니다. 이 땅의 연합 가운데에 하늘의 임재가 넘칩니다(시 133:1-3).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탁월한 삶을 거치게 하는 저급한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이 연합하는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임

# 목사 임직예배 공고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부한인 노회에서 아래와 같이 목사 임직예배를 드리오니 많이 참석하여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일 시: 주후 2018년 12월 2일 주일 오후 5시  
장 소: 은혜와 사랑 교회 본당  
주 소: 55 Magnolia Ave, Tenafly NJ 07670

임 직 자: 김민강도사  
안수 위원: 박진수목사, 고재청목사, 양부환목사, 김승노목사, 박지우목사, 폴리목사, 노성현목사, 문의 사항은 (917) 716-5575



김민강도사

## 캠벌랜드 장로회 동부한인노회

서 기: 박지우 목사  
노회장: 박진수 목사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생각만 바꾸면 감사가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적어도 유인원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감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천국에 가서도 감사는 계속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에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 어떻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던 말인가? 감사는 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상황이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따름이다. 집안이 순식간에 주저앉고 말았다.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가장자인 아버지께서 삼시각에 재산을 몽땅 사기를 당

하셨다. 우리 가족들은 졸지에 셋방살이로 전락했다. 수입 한 푼이 없는데 부모님은 초중고생 네 아들들을 키우셔야만 하셨다. 게다가 고3이었던 맏아들인 나는 폐결핵 중증환자가 되어 가족을 떠나 2, 3년을 시골에서 홀로 요양생활을 해야만 했다. 우리 집에는 남자만 6명이었고, 유일한 여성은 오직 어머니 한 분이셨다. 그런데 어머니마저도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셨다. 설상가상으로 아우는 팔뚝이 부러졌고 그 밑의 아우는 어깨의 빗장뼈가 깨졌다. 집안이 삼시간에 풍지박살이 되고 말았다. 절망뿐이었다. 미래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우리 가정을 밀어붙이셨다. 드디어 믿음의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불신앙의 고집을 포기하고 주님께 항복했다.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찬송하고 회개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때부터 우리 가정의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죽음의 직전에서 어머니도, 나도 살리심을 받았다. 막내 아우는 중1때부터 대학까지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아버님의 사업이 한꺼번에 3개가 풀리셨다. 단칸 셋방에서 방이 4개인 넉넉한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하게 되었다. 난 미국 치과 선교사를 만나서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

다. 어찌 이런 일인가...  
극한 시련 가운데 예수 믿고 순종한 결과였다.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했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다. 어찌 이렇게 급변할 수 있었던 말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훗날 깨닫게 되었다. 순종과 감사가 온 가족들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감사에는 커다란 능력이 있다.

가끔 성도들이 항변한다. ‘목사님!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난 저들에게 항공포함 애기를 들려준다. 거대한 니미츠 항모는 건물로 따지면 13층 높이로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도시이다. 상주하는 승조원들이 6천명이다. 90대의 전투기가 탑재돼 있고, 극장, 방송국, 축구, 야구도 할 수 있고 대학 학위도 딸 수 있다고 한다. 감옥도 있고 병원에 갖추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항모 안에서 각종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어떤 이들은 재판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항모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병들어

도 심지어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도 항모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된다. 만약에 항모에서 추방을 당한다면 어찌 될까? 항모 밖은 죽음의 바다만 있을 뿐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실패도 하고, 질병에 늪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있다면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항모가 기차지를 향해하듯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구원선 안에서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박국 선지자는 이 항모의 감사 비결을 일찍 발견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감사) 하리이다”

감사는 영어로 thank라고 하는데 이 말은 think에서 왔다고 한다. 같은 상황이지만 생각(think)만 바꾸면 감사(thank)가 된다.

jykim47@gmail.com

## 하나님! 모두가 감사입니다...

(1면에서 계속)

다시 말해서, 감사함을 나누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성 성장의 본질로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 말한다. 아래의 멋진 아이디어들은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가족을 위한 감사의 상자(Thank you Box)를 마련한다. 미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방편으로 장식된 감사의 상자를 마련해 매일 가족들은 하루에 있었던 감사함을 쪽지에 적어 상자에 넣는다. 추수감사절에 이 상자가 열릴 때 우리는 매일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살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을 위한 감사의 상자(Thank you Box)를 마련한다. 미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방편으로 장식된 감사의 상자를 마련해 매일 가족들은 하루에 있었던 감사함을 쪽지에 적어 상자에 넣는다. 추수감사절에 이 상자가 열릴 때 우리는 매일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살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추수감사절이 가까울수록 모든 것이 바빠지고 서두르게 될 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놓자.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저녁에 초대한다. 대학가에 위치한 교회(Athens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는 매년 조지아 대학의 학생들을 교인들의 집으로 초대한다. 집이 멀리 있어 가지 못하고 홀로 지내야 하는 학생들은 이 따뜻한

절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 행복하다.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눈다. 가족과 초청된 손님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들 모두의 감사함과 기쁨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즐기거나 나눌 수 있는 명절



로 만든다. 첫째 자녀로 하여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기도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감사함의 기도를 글로 적을 수 있게 북돋아 준다.

올해 한 해 얼마나 많은 아침을 감사하며 깨어났을까? 하루에 한 번쯤은 무엇인가 감사한 적이 있는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느 시인이 노래했던 글을, 끝맺음으로 올

에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달는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슬과 바람을 주시어 퐁퐁하게 영근 가을 고개 숙인 곡식을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온 그 섬리 감사하며 알알이 땀글땀글하게 익은 색 색깔의 과일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찌우는 하나님 선물 기쁨과 평화의 선물로 복 내려 주심일세. 이 가을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 주님께 바쳐 감사 찬송 절로 나와 수확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드립니다. 일 년의 하루하루 감사치 않은 날 어디 있으리란! 땅의 온 교회 모든 성도 한 마음 가득 담아 감사절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웁니다. 우리의 신앙 열매는 얼마나 추수할까? 알곡이 되기까지 한나 시련 다 이기고 몇몇한 믿음으로만 하늘 곡간 꼭 채울 것입니다.”

## 승자도 패자도 없다...분열만 있을 뿐

(2면에서 계속)

“국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 더 보수적인 법관들을 원하는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그의 인기가 견고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8 선거 결과가 확인시켜준 게 있다면, 트럼프주의 혹은 적어도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이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같은 핵심 대선 격전지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적의를 품은 전 공화당 지지자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정말로 트럼프가 절망적인 실패자라면, 공화당은 우호적인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훨씬 더 나쁜 성적을 거뒀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여전히 고학력,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와 교외지역을 뺀 시골 지역에서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북스(Vox)는 ‘공화당 주, 민주당 주’라는 기존의 분류 대신 이제는 주 내부에서 목격되는 도시-시골 간 차이가 두 당의 지지층을 가르고 있다고 짚었다(it could take days-or weeks-to find out which party won Congress).

교외 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진출은 시골 지역에서 공화당이 크게 이기면서 상쇄됐다. 2012년에 미주리주에서 민주당 클레이 맥카스킬 상원의원은 시골 지역인 셀린 카운

티에서 22.5%p 차이로 이겼다. 2018년에는 21.4%p 차로 졌고, 비슷한 시골 지역들이 돌아서면서 끝내 재선에 실패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다른 곳과 일맥상통한다.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은 고학력 백인과 라티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과 교외지역에서 그동안의 성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공화당은 플로리다의 덜 교육받은, 문화적으로 더 남부적인 시골 지역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덕분에 모두 승리를 거뒀다.

물론 공화당에게도 고인이 있다.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인구에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고령층, 시골, 저학력 백인들의 지지 정당 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2016년 대선 이후 공화당을 등지고 넘어온 백인 고학력(고소득) 지지층을 기존 지지층과 묶어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이는 민주당이 더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결론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엄

청년 성공’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했다. ‘엄청난 실패’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뿌린 ‘분열과 분노의 정치’란 씨앗은 전통적 보수 지역인 남부 일대와 ‘러스트 벨트’(중서부-북동부 일대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확실히 뿌리를 내렸다. 2020년 대선까지 2년여, 하원을 중심으로 펼쳐질 정치권공의 공방은 미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206)579-7576, Fax. (206)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bkc.org</p>	<p><b>벤엘교회</b></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www.bostonkorea.org</p>	<p><b>샬럿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p>	<p><b>안다솔교회</b></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8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andychurch.org</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p>	<p><b>앵커리지베렐문교회</b></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p>	<p><b>엘파소열린문교회</b></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성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St., Horsham, PA 190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킬린노루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aleti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예수교회</b></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어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떠들썩했던 “민주당의 파란 파도(Blue Wave)” 의 영향은? 중간선거 하이라이트 몇 가지!

Blue Wave?—NO thanks “CANCELLED!”

미국인들 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 대한 심판의 기회로 몰아간 민주당이 일으키려고 했던 ‘물결(wave)’이 과연 성난 파도와 같았는지, 아니면 잔잔한 물결 정도로 끝이 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몇 가지 리포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바라고 있었던 초대형 사건이 일어난 밤이 아니었다는 보도를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리버럴(Liberal) 정치인들이 원하던 ‘blue wave(민주당의 파도)’는 지난 10년간 중간 선거에서 있었던 주요 파도에 비교하기에는 많이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를 확보한 것을 내세웠지만, 중요했던 상원에서의 공화당 의석 확보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매우 중요한 주지사(Governor) 자리들이 어느 때보다 보수들에 의해 채워졌습니다.

Liberal 미디어의 선두주자인 CNN Jake Tapper조차도 조기 투표 결과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며 “이것은 민주당의 ‘파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정도인데, 말하자면 파도보다는 파란 잔잔한 물결 정도로 보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떠들썩한 할리우드 스타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상원자리들은 공화당으로

시각적인 주류미디어와 할리우드 스타들의 민주당 지지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결과적으로 과반수 석을 굳혔습니다. 더 치열한 전쟁을 한 세 의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텍사스 주의 테드 크루즈(Ted Cruz)는 팝스타 가수 비욘세가 지지한다고 한 베토 오어키 의원의 치열한 상원의원 경쟁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2)플로리다 주지사 릭스콧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 중 하나인 곳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빌 넬슨을 물리쳤고, (3)미주리 주 법무장관 Josh Hawley(저시 할리)는 상원의원 경선에서 중부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캐



버너 효과’ 덕분에 2선 경험의 민주당 상원의원 클레어 맥카스킬을 앞질러 수 있었습니다.

####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투표 경향

역사적 투표경향을 보면 대통령이 공화당일 경우, 공화당원들이 하원 의석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겉핥기 따르면 “대통령당은 중간선거 때 거의 항상 손실을 입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류언론들의 반 트럼프행정부 뉴스를 들어보면 지난 중간선거 받은 현 집권당에게는 훨씬 더 나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다.

예를 들어,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중 첫 중간 선거는 민주당에게는 큰 선거 패배였습니다. 공화당원들은 하원에서는 63석, 상원은 6석을 얻었고, 주 의회와 주지사 선거에서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지난 중간선거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선거일 밤 하원 쪽의 균형이 어느 정도 바뀌었지만 민주당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인 여성, Young Kim(영킴) 미 연방 하원의원으로 승리하다!

하원은 반기독교적인 민주당에게 넘어갔지만, 한인 커뮤니티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Young Kim 하원 의원은 캘리포



니아에서 한 유일한 민주당원이었는데, 그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지역에서 라이벌인 패트릭 모리스리 버지니아 검찰총장을 근소한 차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2016년 트럼프가 승리한 주들에서 상당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패배하며 낙선했습니다. 하이다 하이츠캠프(North Dakota), 조 노블리(인디애나), 클레어 맥카스킬(미주리), 그리고 빌 넬슨(플로리다)은 모두 공화당 후보들에게 패했습니다.

3. Grassroots Movement - 풀뿌리 시민운동의 큰 영향력

비록 주류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과 현 행정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편향성적인 내용으로 언론을 도배해도, 실제로 일터, 농장, 가족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인종에 속한 흑인, 히스패닉, 동양인 시민들이 일어나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 중간선거를 분석한 3가지 포인트

1. George Soros, Bloomberg 같은 민주당 큰 손들이 지원한 역사적인 액스의 캠페인 현금도 텍사스를 민주당으로 바꿀 수 없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원의원도 그에 속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는 2018년 중간선거의 총비용이 이전까지의 기록을 깨는 사상 최대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blue wave”를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의 큰손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간선거에서 돈이 여전이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선거자금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도 2016년 대통령 뽑는 대선 이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미국의 저력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캐버너 효과”

중간선거는 친공화당 성향의 주에서 출마한 상원 민주당 의원들(브렛 캐버너 대법원장의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에게는 힘겨웠던 밤이었습니다.

Joe Manchin 상원의원은 카바노를 대법원 판사로 확정하는데 투표

한 유일한 민주당원이었는데, 그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지역에서 라이벌인 패트릭 모리스리 버지니아 검찰총장을 근소한 차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2016년 트럼프가 승리한 주들에서 상당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패배하며 낙선했습니다. 하이다 하이츠캠프(North Dakota), 조 노블리(인디애나), 클레어 맥카스킬(미주리), 그리고 빌 넬슨(플로리다)은 모두 공화당 후보들에게 패했습니다.

3. Grassroots Movement - 풀뿌리 시민운동의 큰 영향력

비록 주류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과 현 행정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편향성적인 내용으로 언론을 도배해도, 실제로 일터, 농장, 가족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인종에 속한 흑인, 히스패닉, 동양인 시민들이 일어나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년 반 사이에 점점 더 많은 흑인, 히스패닉, 동양인들, 심지어는 젊은 학생들끼리 자신들이 지지하던 민주당을 떠나 트럼프행정부를 지지하는 “풀뿌리 운동단체”를 만드는 현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류언론들(CNN, NBC, ABC 외 주류 신문사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속였고,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알리며 주류언론을 더 이상 보지 않는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들 자체 내에서 SNS로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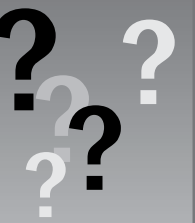
이들중 많은 사람들은 “Why I left the left - 내가 좌파를 떠난 이유”나 “Walk Away - 좌파로부터 나왔다”라는 운동단체들을 만들어 그들의 SNS를 이루며, 그동안 자신들이 주류언론들에게 속았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SNS를 통해 나누며,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은, 민주당의 어젠다(Agenda)들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지를 나누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지지도를 더 높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SNS는 계속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고 있으며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시민들끼리 펼친 SNS의 풀뿌리 운동(Grassroots movement)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hyunlee@gmail.com

Q: 오늘날 현대인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 건강식품도 먹고 병원도 자주 가서 체크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건강을 잘 유지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경의 예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구절을 통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너에서 전 교사

A: 예방의학자인 황성주 박사가 쓴 “성서건강학”을 보면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면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을 생활양식(Life style)이라고 했습니다. 생활 스타일을 바꾸면 심장병, 암,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70-8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권장하는 것은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표본인데 예수님은 조기 취침과 조기 기상하시면서 아침에 한정한 곳을 찾아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둘째, 하루에 30분 이상씩 걸으십시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

### 몸의 양약, 뼈의 양약, 마음의 양약으로 건강유지

이 있습니다. 건강하시려면 걸으십시오. 예수님은 보행 건강학의 모델입니다. 공생애 3년 동안 매일 많이 걸으며 전도하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천리 길 행군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걸으면 혈압도 떨어지고 몸의 모든 기능이 활발해지고 젊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토바이를 즐겨 타던 한 젊은이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의 안전수칙인 헬멧을 안 썼기에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규가 바로 성경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건강을 위해 3가지 양약을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 몸의 양약이 있습니다. 잠언 3장 7-8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는 생활, 악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둘째, 뼈의 양약이 있습니다. 잠언 7장 22절과 16장 24절에 나옵니다.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17:22).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16:24).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뼈의 양약은 소극적으로는 걱정과 염려를 떨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선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의 양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잠17:22). 마음의 즐거움 이상의 좋은 보약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즐겁게 가지는 것입니다. 즐겁게 직장생활이나 일하고 교회생활도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1999년 4월 27일자 한국일보 신문에 “교회에 나가면 장수한다”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천국에 늦게 간다. 이는 텍사스 대학, 플로리다 주립대, 플로리다 주립대 이 세 대학 공동 연구진이 9년간 22,000명을 상대로 신앙생활과 수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수명이 10%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수명이 75세로 나타난 반면, 매주 1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평균수명은 82세입니다. 주 2회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83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목회상담학 DMin in Counsel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3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남아시아의 벵갈 부족(BENGALI TRIBES)



벵갈족과 관련된 6개의 부족들의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벵갈족 대부분은 그들의 공통 언어인 벵갈어로서 쉽게 정의되는데, 벵갈족이라고 언급은 되지만 벵갈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소규모 부족들이 몇몇 있다. 그들의 언어는 인도-아리안 어계의 아쌈-벵갈 어군에 속하며 인도의 하종과 키산간지아족, 방글라데시의 하종과 타즈푸리족, 네팔의 라즈만시와 카요르트족 등의 부족이 있다.

하종족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산지에서 원래 살던 부족이며 그 후 북쪽으로 이주했다. 오늘날 그들 대부분은 방글라데시의 중동부, 주로 가로 산지의 남쪽 경사에 있는 미멘신그 주 북부에서 살고 있다. 또 거기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인도로 이주했으며 현재는 아쌈, 서벵갈,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에서 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는 사람들 다수가 그곳에서 30년 동안 살아왔음에도 철거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타즈푸리족은 인도 점령의 방글라데시 북부에 위치한 랑푸르 평야에서 살고 있다.

삶의 모습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사는 벵갈
-------	------------------

인들의 약 80%가 일정한 형태의 농사를 하고 있으며, 논벼가 주요 작물이고 밀과 감자도 최근에 추가로 재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방직술과 자수에 있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만든 물건을 매 주마다 열리는 시장에서 거래한다.

무슬림 침략자들은 12세기에 방글라데시의 힌두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으며, 벵갈 부족들 다수가 1600-1700년경에 무슬림에게 정복당하면서 산지로 피난 갔다. 그들은 나중에 되돌아와 근처 평야에 정착해 대부분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다.

"씨족 체제"에 대해 과거 벵갈 부족공동체는 알지 못했지만 이들이 힌두교를 받아들이며 힌두의 카스트와 관련된 12개의 씨족들을 받아들였다.

남아시아의 다른 대부분의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벵갈 부족들은 분명하게 노동이 분업화되어 있다. 가족의 직업적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남자는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맡을 책임이 있다. 토지는 항상 개인 소유인데, 작은 가족의 논밭은 대체로 면적이 약 1헥타르(2.5에이커) 정도로 이를 다시 여러 개로 나눈다.

벵갈 사회에서의 결혼은 대부분은 중매혼이지만 힌두교도와 무슬림의 결혼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카스트와 사회계층이 대단히 중요하고 고려사항이다. 시골지역에서 부부는 거의 항상 시가와 함께 또는 근처에 산다. 유일한 예외는 타즈푸리족의 경우인데 심지어 그들도 점차 여기에 따르고 있다. 벵갈 부족 공동체의 대부분에는 미혼 남성들이 사는 특별한 공동주택이 있다. 이 주택은 마을 장로들의 모임장소로도 사용된다.

한 벵갈 부족인 타즈푸리족의 종족 기원은 많은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위대한 왕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자가장제 사회에 속해있다.

신앙

일반적으로, 여러 벵갈 부족들은 "힌두화된" 종교를 갖고 있다. 그들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받아들이고 수백만의 힌두교 신들을 숭배하고 있지만 전통신앙도 지키고 있다. 단지 한 벵갈 부족, 방글라데시의 타즈푸리족은 상당히 많은 수(거의 30%)가 무슬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이슬람과 함께 전통신앙을 따르고 있다.

벵갈의 부족 종교는 다양한 마술과 가정신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또 죽은 후의 삶도 믿는다. 마을 장로들은 종교의식을 주관할 책임이 있다.

다른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벵갈족도 애니미즘 숭배자로서 산과 강, 숲에 신령들이 깃들여 산다고 믿는다. 따라서 자연의 많은 대상들이 숭배된다. 하지만 그들이 접 더 교육을 받으면서 미신과 애니미즘, 주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필요로 하는 것들

카요르트, 키산간지아, 타즈푸리 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경은 아직 없다. 타즈푸리족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12,000명의 인구 가운데 단 한 명의 기독교인 형제가 있다고 한다. 현재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것이며 그 다음은 보다 나은 교육을 받는 것일 것이다.

벵갈 부족 대부분이 힌두교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박해와 종교 갈등을 겪었다. 방글라데시에서 사는 부족들은 전체 인구의 단지 소수(11.3%)에 불과하며, 많은 사회적 거부감과 종교적 박해를 경험했다. 인도에 사는 부족들은 난민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추방자로서 대우받고 있다. 이러한 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성경은 필수품” 영화 상영 거절 논란

영국의 유명 영화관 체인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정부가 참전군인 전원에 성경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단편영화 상영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관측은 지나치게 종교적이라며 거절 이유를 설명했지만 기독교 단체들은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즈' 등은 최근 성경 무료배포 단체인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지난 11일 제1차 세계대전 휴전 기념일(Armistice Day)을 맞아 '엠파이어 시네마(Empire Cinemas)'에서 자체 제작한 단편영화를 상영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3분짜리 짧은 영화에는 자료 영상과 함께 '전 세계 영연방에서 9백만 명 이상의 남자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그들은 모두 성경을 군사 물품으로 지급 받았다. 성경은 희망의 원천이자 영원한 안식을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이다'는 자막이 나온다. 이어 현재를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을 암송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성경, 오늘날에도 여전히 평화와 희망을 드림니다'는 자막이 흐른다.

바이블 소사이어티는 애초 14개 엠파이어 시네마의 총 125개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었지만 엠파이어 시네마가 이를 거절했다.

엠파이어 시네마측은 "바이블 소사이어티는 우리의 결정에 실망했겠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성경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영상의 초반 20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현대 영국인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내용"이라며 "어떤 종교 단체의 광고도 상영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블 소사이어티측은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종교적인 문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책이었다"면서 "성경이 영국 군인 전원에 지급된 균형 필수품이라는 건 역사적 사실이다. 많은 사람에게 성경은 희망의 원천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기업인 엠파이어 시네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유지만 영화관을 찾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될 기회를 놓치게 돼 슬프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기독교 영화의 상영을 거절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디지털 시네마 미디어는 2015년 '다른 신념을 갖거나 무신론자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면서 영국 성공회의 단편 영화를 걸지 않기로 결정했다.

### “여학생 사위 지켜보라니...” 체육교사 횡당 징계위기

플로리다 주의 한 공립학교 체육교사가 이 횡당한 일로 징계될 위기에 처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들과 함께 사위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학교가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남학생 라커룸 이용 요구를 허용하고 이에 반발하는 교사들을 처벌하려고 하자 기독교 단체가 소송을 벌이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비영리 단체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최근 플로리다 주 파스코 카운티 소재 채스코(Chasco) 중학교에서 두 명의 체육교사가 심각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플로리다 주 교육당국을 고발했다.

리버티 카운슬에 따르면 채스코 중학교 체육교사인 로버트 오페이사는 최근 남학생 라커룸을 감독하라는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전근될 위기에 놓였다.

채스코 중학교는 스스로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학생이 남자 라커룸 사용을 요구하자 이를 허락했다. 이어 오페이사에게 "그 여학생은 다른 남학생들과 똑같

이 공용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등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면서 라커룸 감독을 지시했다.

오페이사는 학교의 지시를 거부했다.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남학생들과 함께 옷을 벗고 샤워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페이사와 남학생들은 옷을 벗으며 라커룸으로 들어오는 여학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리버티 카운슬의 변호사 리처드 마스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라커룸에는 프라이버시가 없다. 샤워실도 개방형"이라며 "라커룸 감독을 지시받은 오페이사는 도저히 미성년 여학생이 알몸이 되는 걸 지켜볼 수 없었다고 한다. 또 교사는 그렇다고 해도 다른 남학생들이 받을 충격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채스코 중학교의 교사인 스테파니 크리스텐슨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알리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학교는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묵살했다. 아울러 두 교사에게 합구령을 내리고 라커룸에 있던 남학생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리버티 카운슬은 소장에서 "학교위원회는 물론 플로리다 주 법 어디에도 젠더 정체성(태어난 성정체성이 아닌 자신이 선택하는 성정체성)을 보호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여학생의 전제는 인정하면서 반대로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교수들이 뽑은 '다시 읽고 싶은 책' 1위 성경

한국 교수들이 뽑은 '다시 읽고 싶은 책' 1위에 '성경'이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를 맞아 지난달 22-28일 교수 405명을 대상으로 독서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성경이 4.9%의 지지를 얻어 가장 다시 읽고 싶은 책으로 꼽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2-4위에는 '삼국지'(나관중)와 '논어'(공자) '토지'(박경리)가 각각 올랐다. '도덕경'(노자)과 '총, 균, 쇠'(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공동 5위, '자본론'(칼 마르크스)과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태백산맥'(조정래)이 공동 7위였다. '어린이왕자'(생쥐페리)는 10위였다.

성경은 교수 추천도서 순위에서도 '자본론', '호모 에우스'(유발 하라리)와 함께 상위권인 3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 1위는 '사피엔스', 2위는 '논어'였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70억 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는 성경이 선교지 등에서 무료 배포되거나 필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읽힌 부수는 집계된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설문결과에 대해 "근본적이고 고전적인 세계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려는 지식인 집단의 고민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자는 조정래(3.9%)였다. 이어 김훈과 유시민, 유발 하라리, 베르나르 베르베르, 무라카미 하루키, 도스토옙스키, 박완서, 칼 마르크스 순이었다. 한편 교수들은 도서 구입비로 연평균 64만 8000원을 지출하며 연간 44.4권(한 달 3.7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집계됐다.

### 중국 선교사 잇따라 추방...주변국 확산 우려

중국에서 사역하던 A선교사(45)는 지난 5일 추방돼 귀국했다. A선교사는 8일 "지난달 중순 집에서 현지인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중국 공안들에 연행됐다"면서 "노트북과 스

마트폰, 선교 관련 자료들을 모두 압수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았다. 사흘 후 스마트폰 돌려받고 귀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외국인 선교사를 전부 내보낼 것"이란 말이 현지에선 파다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추방되면 5-10년간 중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 추방당하는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선교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선교사들에 따르면 10월에만 중국 전역에서 50여명의 선교사가 추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대규모 추방 사태가 이웃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선교사는 "대규모 추방사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선교사 추방의 근거가 해당 국가의 비자법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신분인 선교사는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합법적인 추방 근거가 된다"고 귀띔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다. 인도는 1971년부터 선교사입국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여러 주가 반(反)개종법을 통과시키면서 힌두교 순혈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인도에서 활동 중인 C선교사는 "최근 힌두교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법안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어 학생이나 사업 목적의 비자로 활동하던 선교사들의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교계는 지구적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대만에 수교장로회 통합 세계선교부는 오는 13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광주 진새골에서 전라회의를 갖는다. 위기관리재단도 다음 달 3일 선교사 추방 사태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대안을 모색한다.

선교사 추방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회의론도 있다. 한 선교단체 실무자는 "한국 선교계가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창의적으로 선교에 접근하지 않으면 사후 대책 마련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전쟁' 재발?

스타벅스의 '크리스마스 전쟁'이 또 시작될까?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3년 전 '크리스마스 전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페이스북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타벅스가 기독교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돼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기독교 매체 페이스북에서는 최근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 전쟁 논란의 발원지인 동영상 삭제하겠다고 자신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돈(Ridiculous Amount of Money)'을 제시했다는 조슈아 포이어스타인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기독교 활동가인 포이어스타인은 2015년 11월 5일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에디션 컵을 문제 삼는 내용의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람이다. 스타벅스는 1997년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붉은색 컵에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장식을 새겨왔지만 2015년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이 단조로운 붉은색 컵 디자인만 선보였다.

포이어스타인은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는 것을 놓고 '스타벅스가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음료를 주문할 때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컵에 이를 적어달라고 요구하라는 영상을 찍었다.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삼시간에 화제가 됐다.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 전쟁(War on Christmas)'을 벌인다고 SNS 등에 관련 글을 올렸다.

논란은 할리우드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크리스마스 전쟁을 벌이는 스타벅스를 보이콧해야 한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해 스타벅스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스타벅스는 논란이 일자 "빈 캔버스 디자인은 다양성과 포괄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고객들이 자신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쓸 수 있게 한 것"

이라고 설명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다.

### 우먼 파워'가 선거판 뒤흔들었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는 여풍(女風)이 가장 강력했던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7일 오전 기준으로 여성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 수는 전체 435명 중 9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0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기록은 84명이었다. 이례적으로 많은 여성 하원의원이 탄생하면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여성 당선도 다수 나왔다.

한국계 영 김(66·공화·캘리포니아 39선거구) 후보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한국계 여성이 연방 하원의원에 진출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며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나온 것도 김창준 의원 이후 20년 만이다.

텍사스주에선 첫 여성 히스패닉 출신으로 베로니카 에스코바르와 실비아 가르시아 민주당 후보가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캔자스주와 뉴멕시코주에서는 인디언 출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샤리스 데이비스와 데브 할랜드 민주당 후보가 각각 하원의원에 선출됐다. 할랜드는 "70년 전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았던 인디언 출신인 내가 뉴멕시코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슬림 여성 하원의원 2명이 나오기도 했다. 필레스타인예 이민자 2세인 라시다 트레일 민주당 후보는 미시간주 13선거구에서 공화당 경쟁후보 없이 입후보해 80% 이상을 득표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디트로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소말리아 난민 출신 일한 오마르 민주당 후보는 미네소타 5선거구에서 7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오마르는 소말리아 출신으로는 최초로 미 의회에 진출하게 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에서 무슬림계 이민자 공격이 증가하는 것이 출마를 결심한 계기"라고 말했다.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으로 탄생했다. 만 29세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민주당 하원 후보는 뉴욕주 14선거구에서 8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됐다. 기존에는 30세에 하원에 진출한 엘리시 스테파니가 최연소였다. 레스토랑 종업원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코르테스는 경선에서 10선 의원인 조 크롤리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조지아주에서 사상 첫 여성 흑인 주지사에 도전했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민주당 후보는 결국 낙선했다. 최대 격전지인 이곳에서 그는 득표율 48%로 브라이언 캠프 공화당 후보(51%)에게 뒤졌다.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데에는 여성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55%가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2014년 중간선거 여론조사 때 이 비율은 49%에 그쳤다.

### 北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 발견

북한에서 최소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발견됐다고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 밝혔다.

조지프 버뮤데즈 CSIS 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여곳 중 적어도 13곳이 발견됐다"며 "이곳에서 유지 보수와 인프라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고 했다.

이어 "해당 미사일 기지들은 북한 외곽 산간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본토 어디든 타격 가능할 만큼 규모가 큰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버뮤데즈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이 기지들에서는 어떤 미사일이라도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기지들은 발사 기지가 아니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CSIS는 설명했다.





#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63. 이기연 목사(1893-1966)

이기연牧사는 1893년 12월 4일에 황해도 황주군 청수면에서 태어났다. 송도 감리교 중학교를 졸업한 후 1919년에 일본 관서학원을 수료하고 1925년에 서울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했다. 연희학교 재학 때 연희 청년회의 심인근과 이시용 등 2명과 함께 3인 전도대를 조직하여 1924년 7월에 몽정촌, 국자가, 팔도구, 삼도구, 동불사, 면도구, 천보산, 구세동 및 명동 등 북간도 일대에 가서 20 여인 순회전도를 하였다. 1925년 개성중앙회관 총무로 3년간 목회를 하였다.

도미

이기연 목사는 유학을 목적으로 1928년 4월 5일에 선박 프레지던트 제퍼슨을 타고 도미했다. 곧 산타피 열차를 타고 텍사스 주 달라스의 미국 남감리교 대학에 입학한다. 본 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고 1931년 5월에 졸업했다.

####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졸업 후 달라노 한인감리교회에 부임한다. 달라노의 한인 거주는 한시대에 의한 다. 그가 1920년대에 50만 달러의 250에 이커의 농장을 마련하면서이다. 이로써 달라노 한인감리교회는 1929년 7월에 시작한다. 미국 남감리교 '한인 신령상 위원장'이었고 오를랜드 한인감리교회의 담임이었던 임정구 목사가 그 날 중가주 달라노를 방문하고 기도처소를 시찰하여 본 교회를 개척하였고, 리들리 한인감리교회 한석원 목사가 관할하게 된다. 달라노는 리들리에서 남쪽으로 60마일 떨어져 있다.

다음 달인 8월 25일 오후 8시에 미국 남감리교 데이비스 총리를 앞세워 마추흥 전도사와 함께 위의 한석원 목사가 달라노를 방문했다. 이날 약 30명의 한인이 모여 교회를 조직하였다. 전도 주임은 한시대, 재무 유사(재정부장)는 김린수, 교육위원은 조울림과 김진규로 선정했고, 김청각의 딸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폐회한 후 아이스크림 파티가 있었다.

다음 달인 1929년 9월 17일에 버클리 웨트 남감리교회당에서 미국인 샘 헤이 목사가 미국 남감리교 가주 동양인선교연합회를 소집했다. 이날 리들리 교회 한석원 목사에게 중가주를 담당하는 구역 목사로 선정하고 달라노 교회를 순회 목회하도록

결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공과는 만국 주일학교 통일 공과를 사용하고 국어학교 교과서는 조선어 독본을 쓰기로 했으므로 달라노 교회에도 적용된다.

이후 한석원 목사가 토요일과 주일을 이용하여 베이커스필드와 테프트와 달라노를 잇는 중가주 순회 목회를 예정하고 달라노에서 예배를 인도하였다. 1929년 10월과 11월 그리고 1930년 1월에도 계속되었다.

1930년 3월 16일에 리들리 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서 데이비스 목사의 사회로 열린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구역의 제1계사회는 달라노 교회의 직원을 선정했다. 한시대와 김린수를 전도사로, 김순기를 탁사(건물관리부장)로, 이용선을 재정 유사(재정부장)로, 조울림과 김진규를 교육 위원으로, 한중상을 국어학교 기성회장으로, 김에나를 평신도 인도자와 연회 평신도 총대로 선출하였다.

1930년 9월 20일에 모인 미국 남감리교 가주동양인선교회 연합회는 리들리/달라노/테프트를 잇는 중가주 구역 목사로 김탁 목사를 선정했다. 이듬해인 1931년 7월의 미국 남감리교 한인 지방회는 한시대를 지방 전도사로 재 파송하였고, 예배당 완성을 위하여 경비 예산을 본 선교부에

제출하되 명년도 예산에 편입하도록 결의하였다. 이해 9월 5일의 연합회는 달라노 교회를 나성 한인감리교회 황사용 목사의 감시 하에 둔다.

부임

이기연 목사는 임정구, 한석원, 김 탁 그리고 황사용 등 4명의 목사에 이어서 5대 목사로 달라노 순회 목사로 부임하여 한



이기연 목사

으므로 그 후가 된다. 달라노 한국학교에서 여름 동안 가르치던 한석원 목사가 이기연이 졸업한 미국 남감리교 대학교로 유학차 떠난 그해 9월 중순 이후가 맞다. 달라노 한인감리교회가 기도 처소였으므로 본 교회 교인은 미국인 제일감리교회에 교적을 두고, 모든 교회 활동은 이기연 목사의 주관 하에 한국어로 진행했다. 이기연 목사는 1931년 성탄 축하식을 예년과는 달리 4부로 나누고 각부의 사회자와 출연하는 연사와 악사는 두어 명을 제하고 다 피어오르는 꽃봉오리같이 아름다운 천진난만한 소년과 소녀였다.

1부는 '정식'으로 김계신 양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이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였다. 애국가를 부른 후 한시대 전도사가 기도하고 사회자의 취지 설명이 있고 난 뒤 김계훈 군이 독경을 하였고, 김계신 양이 예수 탄생을 독창했다. 방은린양과 한유선 양의 순서 후에 한영숙 여사와 한세라 양이 병창을 했고 이 목사가 축도하였다.

2부는 9세 이하의 영아부가 중심이 되었다. 한유희 양이 사회와 반주까지 담당했다. 영아 일동이 '예수 탄생'을 찬송하였고, 한성신 여사가 기도하였으며 조울림이 독경했다. 한유희의 독창이후 여학생이 '오늘이 무슨 날이냐'로 연설을 하였고, 한유선이 벤조를 하였으며, 한유희가 '예수의 친구'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고, 이용선이 기도를 했다.

### 1928년 달라스 미남감리교대학 유학 후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부임

### 1932년 9월 귀국 3개 교회사역 후 중국 동만에 파송, 2년간 선교



미국인 달라노 제일감리교회

시대 전도사와 동역한다. 그의 부임과 때를 맞추어 종전의 중가주 순회구역이 달라노 순회구역으로 변경되었다. 1931년 9월 5일의 미국 남감리교 가주 동양인선교연합회에서 이 목사의 부임이 거론되지 않았

만주 동포 구제에 대한 의미 깊은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총회장 백일규 선생에게서 온 "너희 영아들이 만주 동포 구제를 위하여 거두어 보낸 돈 1원 25전(1.25달러)을 반갑게 받았다"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후 영아들이 먼저 만주 동포 구제를 위하여 헌금한 후 뒤를 따라 회중 일동이 헌금하였는데 총 51원(달러)이었다.

3부는 한유선의 사회로 '연설과 음악'이 중심이었다. 소년 음악대가 연주하고 김세신과 한유만이 '신라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한유범과 김계춘이 음악을 하였으며, 한유희와 한유선이 '고려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소년 음악대가 연주한 후 '동양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한국 대표 한유희, 청국 대표 김재신, 인도 대표 한유범, 아라비아 대표 김세춘, 유대 대표 한유만이 연설을 하였다. 한유범이 인사의 말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4부는 한유선의 사회로 여흥회가 있었다. 이용선 부부의 한국 노래를 위시하여 흥미진진한 여흥이 있고 난 뒤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축사와 연설

1932년 2월 11일 하오에 달라노 지방회가 국민회 제 23주년 창립 기념식을 거행했을 때 이기연이 축사를 하였다. 이날 달라노 교회 국어학교 학생이 창가를 불렀고 음악도 연주하였다. 이날 이기연은 기념품을 위하여 1달러를 헌금했다.

국민회의 달라노 지방회가 삼일절 기념식을 개최하였을 때 이기연이 연설했다. 지방회장이자 전도사인 한시대는 취지 설명을 하였고, 달라노 교회 국어학교 학생들이 창가를 불렀다.

#### 연환회

1932년 9월 2일에 상항 한인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 동양선교회 연합대회가 있었다.

이날 이기연 목사는 유고로 불참했지만, 그의 보고에 따르면 달라노 한인감리교회의 출석 교인은 37명이었다. 이날 주일학교 문제를 토론했고, 상항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빌린 은행 돈을 갚기 위하여 한인 목사들의 봉급에서 지출한다고 데이비스 목사가 보고했다. 이 기간 4월 주일 예배에서 미국 감리교 총회의 클락 박사가 설교했다. 그는 물질이 아니라 정의, 명예가 아니라 사랑, 그리고 권세가 아니라 심자기를 찾았을 때 당시 한인들의 신앙적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 동만 지방

이기연 목사는 1932년 9월 24일에 본국을 방문차 대요 마루 선편으로 귀국한다. 덕동교회, 북진교회, 철원제일교회를 거쳐 중국 동만 지방에 파송된 때가 1939년이니 3인 전도대로 전도한 지 15년이 되던 때다. 그는 이곳에서 1941년까지 2년간 한국인 동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의 두 번째 선교사역이 된다.

귀국한 이기연 목사는 웅진교회, 웅진고등학교 교목, 갈멜전도교회, 구포교회, 마도중학교 교목을 거쳐 온양 온촌교회에서 1960년에 은퇴했다. 1966년 6월 1일에 향년 7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녀 중에는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세호 장로가 있다.

damien.sohn@gmail.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http://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mailto:wde@midwest.edu)



# 리더십 코멘터리 (77)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감사하는 리더, 섬기고 희생하는 리더

감사의 계절, 감사하는 교회

미국 하버드대학교 신학부의 하비 콕스 교수는 세 가지의 유형의 교회에 대하여 논하였다. 자유와 정의의 지향하는 출애굽기의 교회와 감사와 축제의 시편의 교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 교회가 그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대사회의 교회는 출애굽기의 교회, 계시록의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감사와 축제의 시편의 교회 모습이 결여된 듯하다. 세상의 모든 주장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배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배에 있어서 감사와 축제의 요소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축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추수의 감사는 축제요, 함께 기뻐하는 절기인 것이다.

감사의 솔루션

감사는 받은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An Expression of Appreciation)이다. 감사는 'thanksgiving'이다. 다시 말해 감사는 드리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은혜,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언어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라.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참으로, 진실로 감사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형식과 외식의 겉으로가 아니라 속 중심으로,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찬송으로 감사하라. 내 입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하심과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

해야 한다. 우리의 몸, 시간, 재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평탄한 길을 걸든지, 자갈밭이나 가시밭길을 걸든지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이야 어떻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뿐이다.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

게 될 것이다.

감사의 계절에 섬기고 희생하는 리더가 되라

리더십에 관한 이론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이다. 교회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수년간 공부에 매진하기도 하고, 좋은 리더십 모델을 배우기 위해 많은 책을 독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리더는 배우고 훈련한다고 삼중처럼 찍혀져 자동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리더는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효과적으로 이끌려면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력한 리더에게는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강요된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해 자발적으로 부여된 권위가 있다.

그 자발적 권위가 부여되는 것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권위가 저절로 생겨나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 장로라고 할

지라도 섬김과 희생을 통해 자발적으로 얻게 된 권위가 아니라, 타이틀과 영적 권위만을 운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 할 때에, 교회는 그로 인해 수많은 리더십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문제에 빠지게 된다. 지금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실 되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것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위는 저절로 생기게 되고 리더로서의 권위는 주님의 교회와 사람들 속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것이다.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인격에 근거 한다

조직을 운영할 때 권위나 영향력을 지위에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다. 리더가 가진 지위 때문에 저절로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에도 교회 내에서 영적인 문제라면 무조건 목사를 믿고 당연히 존경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정치목사들도 생겨나고 리더들은 자신이 받기 원하는 존경을 얻기 위해 높은 지위나 직책에 오르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교육 수준이 낮았던 과거의 사람들처럼 직함이나 지위에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된다. 이렇듯 막대한 책임감과 중요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의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①분명한 비전 제시: 리더십의 본질은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강하게 확신시킴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아 큰 성과를 창출해 내는 데 있다. 가시적인 성과로 조직을 이끌고 가는 유능한 리더는 비전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직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개개인의 조력이 어떻게 공동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뚜렷하게 보여준다.

②끊임없는 열정: 탁월한 리더는 예외 없이 전부 자신의 삶과 성취, 발전에 있어 뜨겁게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탁월한 리더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열정과 진취성, 긍정적인 태도로 조직 전체를 전염시킨다.

③동기 부여 능력: 조직의 결실은 다양한 재능과 역량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구성원들의 재능과 열정을 끌어내는 리더의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소속된 사람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몰입과 헌신을 유도하는 동기부여 능력은 리더가 반드시

##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라야 리더의 자발적 권위 부여돼 권위나 영향력이 지위에 연결 안 돼...5가지 자질 유념

감동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목사가 해당 지역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교인들의 평균 수준이거나 특정 지역은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있다. 하이클래스 교육을 받은 교인들은 성경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성경적 지식을 얻는 방법도 알고 있다.

교인들이 양전히 목사의 말을 받아들이던 때는 지났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가 가진 지위가 반드시 존경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리더가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지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인격에 근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5가지 힘을 가진 탁월한 리더가 되라

리더란 특정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 그 리더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리더의 사람됨과 성품 그리고 역량이 그 조직과 공동체의 앞날과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④혁신과 열린 마음: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대에는 혁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조직과 공동체는 뒤쳐지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조직 전체가 변화와 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 중의 하나이다.

⑤높은 인격과 공감능력: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추지 못하고는 결코 구성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불가능하다.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탁월한 리더는 책임을 질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구성원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

감사의 계절에 섬기고 희생하는 리더가 되어 인격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탁월한 리더가 되라.

sondongwon@gmail.com

##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캐나다서부장교회)

## 입술의 열매

벌써 11월이다. 달력을 보니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된다.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썩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 지혜자의 입술에서는 복된 열매를 거둔다.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는 심판의 열매를 거둔다. 말은 평소 애써 쌓은 마음에서 나온다. 영국속담에 "그릇은 두드려 보면 알고,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말이 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며 됨됨이다. 피할 수 없다. 잠시 거짓 입술로 아름답게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 금방 탄로 나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패역한 혀는 마음에 상처를 준다. 악한 자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거짓된 혀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뱀같이 날카로운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고, 매를 자청한다. 그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 된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다.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이다. 지옥 불에서 나오는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복된 입술에 대한 교훈도 많다. "선한 말은 꿀 송이와 같이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된다.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 선한 말은 정결하다. 의인의 입술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학자의 혀는 말로 곤고한 자를 도와준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이다.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시지만, 평소의 말도 다 듣고 계신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단 물과 쓴 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하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시109:17).

bible66@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p><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8:45 금요기도: 오전 10:00 (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찬양: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cb.org</p>	<p><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p><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kapcc.org</p>	<p><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새)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7406-7577, (718)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inchon.com</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창간50주년기념: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8: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전 10: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8:0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b>주비성교회</b>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찬양기도: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p>	<p><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p><b>퀸즈한인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30 찬양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8:0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div style="text-align: center;">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div>							<p><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www.pcc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p><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별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340 PAULO-SP-BRASIL</p>	<p><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호브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amp;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b>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Tel: (52)33-3507-4111 E-mail: hanjkn@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 한 구원자

기독교는 인간이 범죄하므로 단 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 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의 구원자로 믿지만, 하나

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복락의 천국시민 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스스로 자신의 빛을 갈을 수 없는 채무자가 빛을 갈으려면, 빛이 없는 독지가나 재력가가 대신 빛

을 갚아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죄 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으신 분이셔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므로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 인간 모두 는 다 죄인이므로, 스스로 죄의 문 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 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 다"(롬3:10)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웅호걸, 위대 한 위인, 성자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므로 우리 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예수님만이 죄 문제의 해결자 이십니다.

2.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결과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불안, 공포, 두려움, 짜증, 불평, 심술, 고뇌, 우울 등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지적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그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제상황 가운데 불신자들은 낙심, 좌절, 절망하며 자살에 이르기 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온 힐 박사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7가지 두려움"을, '가난, 실패, 소외, 질병, 늙음, 죽음,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무서움,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요14:2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평강(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사 9:6)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4. 선한 목자이시다. 목자가 하는 일은 3가지입니다. 양을 먹이는 일, 지키는 일, 인도하는 일입니다. 맑은 물, 맛있는 풀을 찾아 먹이고, 목숨을 걸고 무서운 맹수와 싸워서 지켜주고,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나 시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요10:11)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선한 목자로 믿기만 하면, 먹을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주시고, 안전한 쉼터와 시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파멸의 길로 이끌려는 악한 영들에게서 지켜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왼쪽부터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전 에모리대학 총장), 박종천 세계감리교협의회(WMC)의장,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은희곤 감독(기장 미주자치연회), 정희수 감독(위스콘신연회, UMC GBGM 총회 세계선교부 이사장), 토마스 캠퍼 총무(UMC GBGM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

며 "깊은 산 오솔길 옆 작은 연못에 살고 있는 예쁜 봉어 2마리처럼 남과 북이 서로 싸워 한반도가 결국 그 누구도 살지 못하는, 아니 그 누구도 살수 없는 작은 연못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연못 한반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강명철 위원장은 김영주 목사(전 교회협 총무)가 대신 읽은 서한에서 원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으며, 북한 측이 불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조선 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이 관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 이행에 제재위반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작금의 화해와 관계개선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후 박종천 회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원탁회담이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11일까지 일정을 갖고 애틀랜타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에서는 은희곤 감독(단장), 김영민 목사, 김환중 목사(이상 미주자치연회 소속), 김영주 목사(전 교회협 총무), 남기평 목사, 남수현 목사 등 6명이 KMC대표단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밖에 정명기 목사와 김성복 목사, 김정석 목사 등이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은 올해로 3번째가 된다. 1차 모임은 지난 2016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감리교대회에서 시작됐으며 2차 모임은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렸다. WMC, KMC, UMC는 이 자리에서 1)평화와 화해의 신학 정립 및 증진 2)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교회의 역할 3)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위한 북한정부와의 협력 등 3가지에 의견을 같이 했다.

(기사제공: 미주자치연회)



KAPC 제42회기 임원 및 노회장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북한교회 재건” 관련 학술대회 등 논의

KAPC 제42회기 임원 및 노회장 연석회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재열 목사) 제 42회기 임원 및 노회장 연석회의가 지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멕시코 칸쿤 Ocean Coral & Turguesa 호텔에서 열렸다.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발전과 각 노회와의 소통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북한 교회를 위한 총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주제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목사-장로기도회를 학술대회로 개최하는 방안과 총회 안에 상임기구 설치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총회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전산 업무를 업그레이드하도록 논의했다.

한편 제 43회 총회(2019년 5월 예정)가 LA에서 열리게 됨으로 총회 준비위원장이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KAPC)

세계감리교회, 한반도평화위해 한자리

한반도평화위한 3차 원탁회담, 애틀랜타 성명채택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Roundtabl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조지아 주 애틀랜타 카터센터에서 개막됐다.

세계감리교협의회(WMC, 회장 박종천)가 기독교대한감리회(KMC), 미 연합감리교회(UMC)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원탁회담은 박종천 회장이 주재한 오프닝 세션으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환영 인사,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약속'과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의 강연 및 대화가 이어졌다.

이어 크리스티안 안(우먼 크로스 DMZ 국제코디네이터),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중대(리제네레이션 무브먼트 대표), 피터 프로브(세계교회협의회 국제협력국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토의를 회중들과 나눴다.

특히 이날 오프닝 세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가 전달돼 김영준

주 애틀랜타 총영사가 대독했다. 오프닝 세션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근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로 자리를 옮겨 두 번째 세션을 시작했으며 이번 원탁회의를 주관한 연합감리교회 정희수 감독(세계선교부 회장)의 환영사와 한국 감리교회를 대표한 은희곤 감독(미주자치연회) 등의 답사, 이번 회의에 불참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의 기도편지 소개 등이 이어졌다.

은희곤 감독은 "한국 감리교회와 전지구 감독교회의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고 말하고 "3번째로 모인 원탁 회담이 적대적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상상, 화해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자리가 되고 세계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그리고 많은 형제 교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분명한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 감독은 또 한때 금지곡이었던 노래 "작은 연못의 가사를 인용하

고 결과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들의 교회도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나가 공동된 관심사"라며 "이를 위해 은사와 기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갈등은 극복할 수 있으며 사역의 하모니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질테스트를 참석자들이 함께해보며 기질이 교회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 주최 공개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이동원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은사와 기질에 관심 갖고 갈등 극복하라”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공개세미나, 강사 이동원 목사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총장 제이슨 엘런 박사) 주최 공개세미나가 9일 오전 10시 토론토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열렸다.

박성진 한국어프로그램 학장 사 회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동원 목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자주 쓰는걸 보게 된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마치 결점이 없고 완벽한 교회인양 미화하려 하는데 전혀 그

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초대교회는 갈등으로 시작했다. 파벌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성장에 따라 오는 아픈 갈등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 람의 선택이었으며 그들에게 구체 문제 등을 맡기고 리더들은 말씀과 기도사역에 전념하게 됐다. 그리고

복음 향해 선교사적 삶 살아가자

KWMO 출범... 7개 분과 책임자 명단 발표

세계선교기회운동(KWMO)이 공식 출범했다. KWMO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제 1회 선교박람

회를 열었으며 7일 폐회예배를 겸 한 KWMO 창립예배를 갖고 출범했다.

이빌립 선교사 사회로 시작된 창립예배는 박종국 선교사가 기도했으며 이재환 선교사가 스가라 10장8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재환 선교사는 "세계선교는 불가능해보이고 특별히 이슬람권 선교는 더욱 그렇다"며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선교사들의 활동비율은 5-6%에 불과하며 도시화로 인해 종족개념이 희미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선교사는 "선교사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는 완성되지 않겠지만

복음을 향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들은 춤을 추며 기뻐 찬양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임운택 교수(폴리신학교)가 축사했으며 최규남 총장(그레이시미선대학교)이 격려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참석한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사 선언문을 낭독한 뒤 한기홍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다음은 KWMP 분과명단이다.

△교육분과: 장규주(키르키즈스탄) △BAM분과: 상영규(필리핀) △노동분과: 김상기(미국) △솔라 등분과: 김만덕(미국) △AIDS분과: 정하희(우간다) △3분박분과: 송유태(한국) △여성분과: 에스더정(이스라엘).

(박준호 기자)



KWMO 창립예배에서 참석자들이 선교사 사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저지교협 시무 및 이취임 예배

제 32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홍인석 목사) 시무 및 이취임 예배가 11월 19일(월) 오전 10시30분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njkoreanchurches@gmail.com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8년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 '2018년 후원자의 밤'이 11월 25일(주) 오후 5시30분 뉴욕에베셀선교교회(담임 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린다. 2018년 한해 동안 동 기구를 후원한 후원자들을 초청해 선교보고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문의: (917)656-0176 이창양 간사

## 나눔감사 후원의 밤

뉴욕 지역 한인노숙자 비영리전문기관 무료쉼터 운영을 하는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일 목사)이 주최하는 '나눔감사 후원의 밤'이 12월 17일(월) 오후 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문의: (718)683-8884

## 정규석 목사 별세

한민자선선교회를 오랫동안 사역해왔던 정규석 목사가 지난 6일 유니온 플라자 양로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101세. 환송예배는 9일, 발인예배는 10일 중앙장사사에서 있었다. 자녀는 3남4녀가 있다.

▲문의: (201)390-2310

## 담임목사 청빙

필라 시내 대학가에 위치한 필라델피아아미남유교교회(www.iemmanuel.org)가 담임목사 정년 은퇴에 따라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소지, 미국장로교(PCA)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이중언어(Korean and English) 구사 능력, 이민목회 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 미국에서 합법적 사역 가능(영주권자 이상)한 분으로 제출서류는 이력서(한영) 1부, 최근 설교 동영상 2편, 자기소개서(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성경배경/가족소개), 3인의 추천서 등이다. 서류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 이메일(iemmanuelstuh@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484)995-2931 서창윤 장로

## 담임목사 청빙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름다운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소지,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 PCUSA 소속 및 가입가능, 미국에서 합법적 사역 가능, 한영 언어 가능한 자로 제출서류는 이력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사진포함), 신앙고백과 목회계획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추천서 2부(추천인 연락처 기재), 최근 6개월 내 설교영상(CD or 링크) 등이다. 서류마감일은 11월 30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www.arundaunchurch.org

▲문의: callingpastor@arundaunchurch.org

## 뉴저지말산선교단 추수감사절 기금모금 디너

제 14회 뉴저지말산선교단(단장 강원호 목사) 추수감사절 기금모금 디너 행사가 11월 24일(토) 오후 6시 뉴저지 해켄스 스톤 힐 로드에서 열린다. 장애인 썬더 보수를 위한 이 기금마련행사의 강사로 하형록 회장(팁하스)이 나선다. 1일당 참석티켓은 150달러. 후원도 받고 있다.

▲문의: (201)530-0355, 638-5148



AG뉴욕신학대학원(원) 개교40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음악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갈보리채플 설립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김주동 목사 갈보리채플 설립예배

뉴욕 업스테이트 온누리성결교회 담임 김주동 목사가 뉴저지로 사역을 옮겨 갈보리채플을 개척했다. 지난 4일 설립예배에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목회자들이 대거 참여해 축하했다.

김주동 목사는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교회와 선교회라는 두 날개로 잡고 여러 문제와 인생의 짐으로 힘들어 하고 낙망하는 한인들에게 십자가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복음

을 전하겠다"며 "또한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들을 직접 찾아가고 위로하며 특별히 국제청소년선교센터를 통해 한국의 청년들에게 세계적 인 필요를 터주는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교는 이의철 목사가 했으며, 윤종훈 목사, 황하균 목사가 축사를, 감중운 목사와 문석호 목사가 축하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교협” 표어로 뉴욕교협 제 45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 예배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 45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원, 33대 이사장 시무예배 및 이취임 예배가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걸고 45회기를 시작한다”며 “정직과 진실, 의로 이뤄가는 교협,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45회가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또 이사회와 하나로 뭉쳐 일하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임하는 이만호 목사는 “44회기를 섬기면서 행복하고 감사했다”며 “특히 임원들과 중경회장들, 장로협의회에게 감사하고 45회기 출범을 축하한다”고 이임인사를 했다.

1부 예배는 양민석 목사 인도로 시무기도 문석호 목사,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 특송 뉴욕장로성가단, 말씀 김성국 목사, 헌금기도 김영호 장로, 헌금특송 글로리아아시아스, 축도 방지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는 “내 손을 잡아”(사42:5-9)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새 회기를 시작하는 교협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찾았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4개의 여호와의 노래 중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뉴욕교협 제 45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께 약속하신 말씀으로 첫째, 보호의 약속(6a)이다. 어떤 아담과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손잡아 보호해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둘째, 정체성으로 교협이 교회나 미국사회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언약과 빛으로 대표성을 갖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정의와 사랑의 사명을 주셨다. 교협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과 이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손잡고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취임식은 이은수 목사 사회로 김원기 목사 기도, 이임사 이만호 목사, 교협기 인계, 격려사 허길 목사, 신현택 목사, 축사 장동신 목사(뉴저지교협 부회장), 윤세웅 목사(주목교방송 사장, 축송 양근식 장로, 취임인사 정순원 회장, 양민석 부회장, 김주열 평신도부회장, 손성대 이사장, 위촉장 수여, 위촉패 수여(고문변호사 정준호, 최창호), 공

로패 증정(전임 임원단), 광고 이창종 목사, 폐회 및 오찬기도 전회수



회장 홍인석 목사(가운데)가 교협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이 부회장 장동신 목사, 오른쪽 총무 박인갑 목사.

## “청소년회관 건립, 청소년대회 부활” 제32회기 뉴저지교협 사업방향 및 계획 발표

제 32회기 뉴저지교협이 11월 7일 오전 11시 뉴저지 주 소원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회기 사업 방향 및 계획을 밝혔다. 회견에는 회장 홍인석 목사, 부회장 장동신 목사, 총무 박인갑 목사 등이 참석했다.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11월19일) △중경회장 오찬 간담회(12월3일) △신년 하례식(1월20일) △부활절 새벽연합예배(4월21일) △교협 어린이 성경암송대회(4월7일) △호산나 청소년선교대회(5월10-11일) △교협 어린이 찬양대회(5월19일) △호산나 전도대회(6월21-23일) 등이다.

홍인석 회장은 “32회기 표어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협’이라고 정했다”며,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세대와 세대가 섬김으로 하나가

돼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4년여 동안 열리지 않았던 청소년 연합집회인 호산나 청소년대회를 5월에 다시 개최한다”며 “특히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 ‘호산나 청소년선교대회’라고 호칭하고 장기적으로 교협이 책임을 지고 청소년대회를 지속적으로 열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인석 회장은 또 청소년 회관건립 계획을 밝히고 “지난해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통해 나온 헌금 1만1천불을 미자립교회를 위해 사용했는데, 올해는 청소년사역을 위한 회관 건립을 위해 헌금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펀드레이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소년회관은 뉴욕과 같이 교협과 같이 사용하게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 “전 회원 일치단결, 필라복음화 매진” 필라한인목사회 40회기 총회, 신임회장 김영천 목사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목사회(회장 이재철 목사) 제 40회 정기총회가 지난 8일 오전 10시 필라 한 마음교회(담임 김영천 목사)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김영천 목사가 선출됐다.

신임 김영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71명의 회원과 26명의 원로목사님들이 일치단결해 40년 전통의 목사회를 친목과 협력으로 필라 복음화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1부 경건회는 이재철 목사 인도로 임준한 목사 기도, 임원 일동의 특송에 이어 김영천 목사가 열왕기상 18장 16-24절을 인용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훈탁한 시대적 현실을 직시해 목회자들이 경성하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해근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 총회는 이재철 회장 사회로 모든 회무 처리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후 40회기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신임 임원단에 일임한 후 임원 선정이 있었는데 중경 회장단의 공천으로 김영천 목사(필라한마음교회)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신임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영천(필라 한마음교회) △부회장 임준한 목사(코람네오교회) △총무 한상경 목사(필라 유학생교회) △서기 강영호 목사(안약장로교회) △회계 김중환 목사(인터넷방송 대표) △각분과 위원장: 신학-박태문 목사, 목회-황준석 목사, 선교-이대우 목사, 체육-박도성 사관, 사모-이재철 목사, 원로-신정기 목사, 2세분과-박성일 목사 △감사 김치수, 안문균 목사.

(기사제공: 필라목사회)

## “복음 본질세우는 영적지도자 키우는 기관” AG뉴욕신학대학원 개교40주년 기념예배

하나님의성회(AG)뉴욕신학대학원(원) 개교 40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 음악회가 지난 11일 저녁 5시 뉴욕프라이스교회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학장 김창만 목사 사회로 기도 허영행 목사(프라이스교회 담임), 찬양 신학교글로리아 성가대, 말씀 제롬 더글라스 벨리 포지대학 부총장, 축사 임계주 목사(뉴욕순복음중앙교회) 김명옥 목사(동문회장), 공로패 증정(김남수 목사에게) 이우용 목사(이사장), 헌금기도 이화진 목사(여성교역자 회장), 특송 박진원 소프라노, 축도 김남수 목사(프라이스교회 원로) 순서로 진행됐다.

더글라스 목사는 “Let's Run”(히 12: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여기 3그룹이 있을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아는 사람, 그렇게 이미 시간이 지난 사람. 스스로에게 나는 어떻게 달리고 있는가를 질문해보라. 신학자 부르스는 ‘무게는 경주자를 느끼게 가게 하고, 죄는 믿는 자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했다. 꾸준히 효과적으로 경주하려면 1) 날렵하게 하는 무게를 내려놓고 2)완주를 결심하며 3)눈을 예수께 주목하라. 우리는 제한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유닉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경주를 달리지”고 역설했다.

임계주 목사는 “42년 전 사람이 뉴욕 맨해튼에서 사역자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일치시켜 실현시켰다”며 “이제 동문들과 학생들이 그 길을 나눠가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축하했다.

김명옥 목사는 “40주년 맞은 신학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축하한다”며 “타 지역에도 AG신학교가 있지만 뉴욕이 가장 우수하고 역사가 있고 소명이 있다”고 축하했다.

2부 음악회는 신승희 전도사 사회로 이선경 지휘로 AG글로리아 챔버오케스트라, 재즈 트리오, 피아노 트리오, 프라이스국악관현악단, 교수중창단 등이 공연했다.

이날 만찬기도는 김성달 목사(뉴욕조선교회 담임)가 맡았다. 한편 동 신학교 회지 ‘코이노니아’ 창간호가 참석자들에게 배부됐다. 창간호 축사에서 동 신학교 설립자인 김남수 목사는 “복음의 본질이 흔들려지는 현대교회에 한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기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썼다.

(유원정 기자)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순원 목사 △부회장 양민석 목사 △평신도부회장 김주열 장로 △총무 이은수 목사 △협동총무(수석) 마바울 목사, 권재덕 목사 △서기 이창종 목사 △부서기 정대영 목사 △회계 박영진 목사 △부회계 박정호 목사.

이외에 △이사장 손성대 장로 △감사 김영철 목사 김기호 목사 강영구 장로. 45회기는 특별자문위원회로 4명의 중경회장과 특별기획위원(4명)을 신선했다. 협동총무 60명, 60개 분과위원회, 39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소록 출판 및 홍보담당자들을 선정했다.

한편 지난 총회에서 통과된 특별법규위원회(신설)는 미정이다.

(유원정 기자)

## 동부개혁장신 장학기금위한 찬양의 밤 제 32회...14일 퀸즈장로교회, 21일 만나교회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제 32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의 밤이 11월 7일 저녁 뉴욕성실장로교회(담임 이길호 목사) 열렸다.

동 신학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신학교로 1987년 설립돼 2018년 6월까지 47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부 예배는 이길호 목사 인도로, 기도 전행복 학우, 성경봉독 박매자 학우, 찬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합창단(지휘 윤원상 교수), 말씀 김성국 목사(학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예수의 흔적”(갈 6:14-18) 제목의 말씀에서 “신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며, 예수님 때문에 받은 환란과 핍박,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쌓일 때마다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학생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사단의 프로세스는 이 정대하면 원망하고 도망가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단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관점이 달라진다. 하늘에서 보면 빌딩이나 높은 차가 아무 것도 아니다. 여러분 앞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 날아오르며, 그것을 뚫고 복음 전하는 신학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만 아시면 되니,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돼 믿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2부 찬양은 신학교합창단, 남성중창, 특별찬양 퀸즈장로교회 블레싱콕어(지휘 소유영), 여성중창, 신학교합창단의 찬양과 간증, 봉헌기도 이길호 목사, 광고 학감 허윤준 목사, 축도 총동문회 회장 이종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32회 찬양의 밤은 14일(수) 오후 8시에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1일(수) 오후 8시에는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계속된다.

(유원정 기자)



# 대상에 미성대학교 이딜란 전도사

## 제 3회 남가주신학대학교연합 설교페스티벌

제 3회 남가주 신학대학교연합 설교페스티벌 영예의 대상에 미성대학교 이딜란 전도사가 차지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가 주최하고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목사) 주관으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 설교 페스티벌은 최승목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총무) 사회로 시작됐다.

“한인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넘어 차세대를 향한 계획”이라는 주제로 열린 설교페스티벌의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이딜란 전도사는 “예수님 올기만 하면 됩니까?”라는 제목



제3회 설교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으로 준비했는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설교준비를 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제 삶에서 먼저 나타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교페스티벌은 9개의 신학교 학생들이 준비하기로 설교순서를 정했으며 한명만 명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준비한 설교를 하는 모습은 청중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왔다.

이날 심사평을 맡은 김남중 교수

(클레어몬트신학교 설교학)는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열정적인 설교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설교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본문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연습을 한다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교대상: 이딜란 전도사(미성대학교, “예수님 올기만 하면 됩니까?”, 눅23:26-29) △최우수상: 민학기 전도사(클레어몬트신학대학교, “하나님의 발걸음에 채여서”, 눅23:26-29) △설교주혜상: 앤젤라 리 전도사(베데스다대학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눅23:26-29) △설교전달상: 박윤주 전도사(미주감신대학교, “손에 손잡고 하나되어”, 엠2:12-22), 김선경 전도사(국제개혁대학교, “예수를 따르는 그 길”, 눅23:26-29) △임상상: 박주범 전도사(미주장신대학교, “당신은 생명의 빛이 있는가”, 사60:1-3), 이로운 전도사(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 “누구를 위하여 울 것인가?”, 눅23:26-29), 이수재 전도사(월드미션대학교, “ ”, 사60:1-3), 최신준 강도사(폴러신학교, “함께 세우심을 입은 자”, 엠2:12-22).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나성서울코랄 제74회 정기연주회

나성서울코랄(뮤직디렉터 진정우 박사) 제74회 정기연주회가 24일(토) 오후 7시 임마누엘장로교회(3300 Wilshire Blvd, LA, CA)에서 열린다.

▲문의: (323)309-3368, (562)858-5200

## 무료 건강 세미나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는 한인들을 위한 건강세미나를 17일(토) 오후 4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시더스-사이아니병원 사무엘 오션 종합암연구소와 LA온누리교회가 함께 여는 세미나로 암검진과 미국 의료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보다 많은 한인들이 정확한 건강 정보를 얻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문의: (978)473-4256

## Give Love 콘서트

더락한인교회(담임 박정기 목사 101 E. Orangethorpe Ave. Anaheim)는 사랑을 나누는 감미로운 노래들을 담은 Give Love 콘서트를 18일(주) 오후 6시에 갖는다. 크리스천 문화모임 감성\_in에서 준비한 콘서트 “Give Love”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 즉,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이 땅에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분받아 우리 주변에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만들어낸 콘서트다.

▲문의: (714)504-6918

## 남가주동신교회 설립40주년 기념 찬양음악회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는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찬양음악회를 18일(주) 오후 2시에 갖는다.

▲문의: (714)6801-9556

## 공립학교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LGBT를 포함한 공립학교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세미나를 18일(주) 오후1시 Hyssop Theater에서 갖는다. 강사는 아니 니시 ABC교육구 교육위원.

▲문의: (562)519-7289

## 중현선교교회 원로 추대 및 임직예배

중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는 원로장로, 안수집사, 권사 추대 및 시무장로 임직예배를 18일(주) 오후 3시에 갖는다.

▲문의: (818)549-9191

## 2018년 모퉁이들 북한선교기도회

2018년 모퉁이들 북한선교기도회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23:4)' 주제로 16일(금)과 17일(토) 양일간 에반겔리아대학 강당에서 갖는다. 북한선교기도회 강사는 이삭 목사와 이반석 목사이며 일정은 16일(금) 오후 7시부터 9시30분, 1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다.

▲문의: (714)484-00452



소망소사이어터와 LA 알츠하이머협회와 MOU를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사 15면)



제 25회 남가주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단원들

#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적 파워 있어”

## 남가주장로성가단 제 25회 정기 연주회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박영집 장로) 제 25회 정기연주회가 11일 오후 6시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막을 올렸다.

단장 박영집 장로의 인사말에 이어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는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는 분이요. 찬송에는 영적 하나님의 파워가 있다.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을 목상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밤이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웨키나챔버앙상블(디렉터 조성환, 피아노 이미영)이 서곡으로 러브소나타를 연주한 뒤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 조성환, 반주 이하늘)이 단애 올라 ‘일어나 걸려라’, ‘생명의 샘물’, ‘내 모든시름 무거

운 짐을’, ‘준귀 영광 받으소서’, ‘주 품에’ 등을 들려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소프라노 황혜경, 웨키나 챔버앙상블이 게스트 스테이지를 빛냈다. 이날 곡 중 솔로로는 김경세, 문광규, 임광순, 정기원 장로가, 나레이션은 이영수, 김명국 장로가 각각 맡았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은 1992년 설립(초대회장 김광은 장로)돼 매년 정기 연주회와 교계 단체행사 찬양 및 모국 방문 연주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은 오는 11월 29일 정기총회와 12월 6일 성탄 및 송년축하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중현선교교회에서 열린 새생명 축제에서 강사로 나선 개그우먼이자 방송인 박미선 권사와 탤런트 이광기 집사가 간증하고 있다

# 중현선교교회 새생명 축제

## 개그우먼 박미선 권사, 탤런트 이광기 집사 간증

중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는 새생명 축제를 11일 주일에 배 시간에 가졌다.

SOL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민중기 목사 사회로 열린 3부 예배는 한희도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다.

이어 민중기 목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눅19: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활동 중인 개그우먼이자 방송인인 박미선 권사(중신교회)와 탤런트 이광기 집사(가축한빛광성교회)가 강사로 나서 간증했다. 박 권사와 이 집사는 월드비전 홍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새생명축제에 간증자로 나서게 됐다.

박미선 권사는 어려서부터 교회

를 다니다가, 잠깐의 방황기를 거쳐 지금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의 사연을 담담히 풀어냈으며 이광기 집사는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이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고 전도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한편 이날 월드비전 장립자인 고 밌피어슨 목사의 딸인 매릴린 피어슨 여사가 단애 올라 박미선 권사와 이광기 집사의 간증과 한국 전쟁이 계기가 돼 한국을 돕기 위해 창립된 월드비전에서 한국이 이제 도움의 필요할 나라를 위해 도움을 주게 된 것을 언급하며 감격했으며 중현교회를 찾아온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

이날 예배는 민중기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문화선교원 시전주최 제10회 시로 드리는 예배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언어로 하나님께 지속적 예물 드린다

## 문화선교원 시전 제 10회 시로 드리는 예배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 주최 제 10회 시로 드리는 예배가 10일 오후 4시 아이엠교회(담임 정종원 목사)에서 열렸다.

이민미 전도사는 “수많은 시들이 있지만 허공을 맴도는 시는 생명력이 발산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소모품이다. 또한 시를 잘못 지으면 그 시가 우상이 돼 섬김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도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언어는 왜 예물이 없을까?-왜 신앙에는 시편과 같은 책이 없을까? 의문이 든다”며 “그동안 시전에서는 시편과 같은 시를 썼었다. 또한 이번엔 캘리그래피도 함께하며 하나님께 언어로 예배를 드려왔다. 앞으로 시전을 통해 언어로 하나님께 지속적 예물을 드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갈렘 동인 사회로 열린 시로

드리는 예배는 신병욱 목사(로즈펠리츠연합감리교회)가 기도했으며 정우성 목사(광명교회)가 ‘하늘시인의 행복한 인생’(시100: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낭송은 시전 10기 송희진, 조미나, 박혜경 회원을 비롯, 이영인, 윤일흠, 김영숙, 이민미 시인, 에이미리, 최명희, 정하나, 박미애, 김갈렘, 최리사, 김민숙 동인이 자신들이 지은 시를 낭송했다.

또한 조미나 동인이 특송했으며 박영식 선교사와 김진철 형제가 특별연주를, 시전 동인과 캘리 서향 1기 멤버들이 합창했으며 정종원 목사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정하나 동인이 중보기도를 인도했으며 정우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엘피스 사역원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하나님 창조하신 가정회복위해 사역

## 엘피스사역원 제 3회 정기이사회

엘피스사역원(원장 박운송 목사) 제 3회 정기이사회가 11일 오후 5시 더 스폰 식당에서 열렸다.

박운송 목사는 “지난 3년간 저희 엘피스 사역원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사역해왔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그동안 갈등관리 세미나, 리더십 코칭 세미나, 부모세미나 등 사역을 해왔다”며 “사역을 위해 헌신해준 가족과 이사분들과 자원위원 등 스텝여러분들 그리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역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간사의 찬양인도와 최숙희 사모 사회로 열린 이사회는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이사장 김용민 목사가 ‘거룩한 산제사’(롬12:1-2, 마6: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박성민 목사(아주사파서픽대학교 부총장), 신원규 목사(좋은

마을교회 담임), 김호용 목사(LA북음연합감리교회 담임), 이경식 목사(클레어몬트신학교 교수)가 격려사 했으며 김남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엘피스 사역원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사역을 한다(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소망의 기도로 사역을 시작한다(항상 준비하되) △우리는 섬기는 종의 사역을 한다(은유와 두려움으로) 등의 사명선언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여성사역자(목사, 전도사, 사모)와 교회의 평신도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사역해왔으며 영성사역, 아침묵상, 중보기도 등 네트워크 사역, 갈등관리 MBTI, 리더십 코칭 세미나, 대인과의 소통을 위한 세미나, 결혼예비학교, 부모세미나, 자녀교육세미나, 히브리타 세미나,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가정사역, 그리고 QT세미나, 성경통독세미나, 일대일 제자 훈련 등 말씀사역을 해오고 있다.

(박준호 기자)



LA송실OB남성합창단 제26회 정기연주회가 월서이벨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고 김도석 목사 추모음악회로 열려

## LA송실OB남성합창단 제 26회 정기연주회 성황

LA송실OB남성합창단(단장 김영일, 지휘 이영두) 제 26회 정기연주회가 10일 오후 7시 월서이벨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고 김도석 목사(월트장로교회) 추모음악회로 열린 연주회는 ‘높이 계신 주님’, ‘주의 크신 은혜’, ‘Soon Ah Will Be Done’, ‘할렐루야 야멘’, ‘사도신경’ 등 성가곡과 ‘Love of My Life’, ‘River of Jeda’, ‘O! Sole Mio’,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꽃밭에서’ 등 팝, 가곡 등을 연주했다.

또한 이날 소프라노 신선미와 바이올리스트 김주희 피아니스트 이지영이 찬조 출연하여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이날 연주회는 ‘높이 계신 주님’, ‘주의 크신 은혜’, ‘Soon Ah Will Be Done’, ‘할렐루야 야멘’, ‘사도신경’ 등 성가곡과 ‘Love of My Life’, ‘River of Jeda’, ‘O! Sole Mio’,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박준호 기자)



## ‘받은 은혜, 섬김과 나눔으로’ 총 40억 투입

새에덴교회, 설립30주년 맞아 ‘30가지 사랑나눔’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가 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30가지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새에덴교회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받은 은혜, 섬김과 나눔으로”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교회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쌀(10kg 5000포)을 전달하며 새터민, 장애인, 결혼가정, 독거노인 등 용인시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1만 포기를 지원한다.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산하 4개 기관과 7개 신학교에도 후원금을 전달한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 교회 10곳과 위기를 당한 교회 14곳 돕기, 중증환자 지원, 장학금 전달, 어려움 당한 이웃 돕기, 민간학교, 해외선교 등까지 총 40억원을 투입한다.

소강석 목사는 “최근 교회가 여러 공격을 받고 있는데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시대 분위기상 교회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 우리 교회의 관심은 그들과 소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못된 정서를 희석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새에덴교회는 형식적 행사를 자제하고 나눔과 문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빨리 읽고 교회다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가치와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희석화되거나 제도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쌀을 전달받은 김진식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2014년에도 새에덴교회에서 13t의 쌀을 지원해줘 31개 시군의 시각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교회에서 지원해 준 50t의 쌀을 시각장애인들이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번 나눔운동은 소 목사의 제안에 성도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시작했다. 서광수 장로회장은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전 교인이 모이는 축제를 개최하거나 남아있는 예배당 건축 부채를 상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목사님이 ‘그 비용을 모두 취약계층을 위해 나누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나눔운동을 벌이게 됐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담임목사님의 제안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1988년 서울 가락동 지하상가 76㎡(23평) 공간에서 시작됐으며 구미동 성전을 거쳐 2005년 현재의 용인 죽전성전을 완공했다. 소병감과 영성훈련, 신정주의 로드십 신앙 등을 강조하며 제적성도 4만명의 대형교회로 급성장했다. 오는 11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설립 3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 ‘여호와와의증인 입교’ 문의 급증

‘종교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예장합동 성명서 발표

대법원이 최근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인터넷 공간과 유선상으로 여호와와의증인 가입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는 ‘여호와와의증인 입교신청 절차가 궁금하다’ ‘군대도 가기 싫고 여호와와의증인에 가입하고 싶다’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유선상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6일 기자가 서울 모 지역 여호와와의증인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병역거부를 위한 입교가 가능한냐’고 묻자 “(병역거부와 관련해) 최근에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도가 되려면 최소 1-2년 걸린다. 홈페이지 주소를 줄 테니 한번 알아보겠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병역문제 때문에 물어도 되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동기가 어

떻든 여호와와의증인 신도로서 진정성을 가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은근히 입교를 유도했다. 이처럼 병역기피 목적의 문의와 입교제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여호와와의증인 대법원은 “특별히 문의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발뺌했다.

종교적 신념을 방자한 병역기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교계와 시민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교단은 “명확한 범법적 기준이 아닌 양심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심사의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현실에서 병역거부를 인정해준다면 국군의 사기 저하와 사회적 갈등만 증

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판결로 헌법상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종교나 사상을 근거로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이를 막아낼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2020년까지 대체복무를 입법하라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나서서 국회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대법원은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특정 종교 집단에 특혜를 줬다”면서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군만 분열시킨 만큼 국회가 나서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는 말씀은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의 과정이 내 죄를 용서받는 길이 된다는 것 보여준다”면서 “먼저 용서하자”고 권했다. 그러면서 “남과 복은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라면서 “먼저 용서의 길에 들어서는 노력을 기독교인들이 감당하라”고 못 박았다.

김주환 기아대책 대북사업본부장도 “기독교인들의 남북 교류협력은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협정이나 선언은 정치가들의 몫으로 돌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사랑의 원자탄을 한반도에 터트리자”면서 “한반도에 ‘치유의 생명나무’를 확산해 갈라진 상처로 가득한 황무지를 회복하는 꿈을 꾸자”고 말했다. 2002년 3월 창립된 새한국피스메이커는 11월 10일을 ‘피스메이커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헌금 또는 헌당한 건물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며 “성도로부터 큰 금액의 헌물을 받을 때면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교회 변호사를 맡다 보면 목회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며 “목사들도 3개월 이상은 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유엔에 탈동성애 인권선언문 제출

탈동성애 인권운동가들, 스위스 의회 등에

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스위스 의회 등을 방문해 제4차 탈동성애 인권선언문을 제출했다.

10일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

##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죄 회개...”

예장 개혁총연 ‘총회포럼’, 목회자·성도 1000여명 참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개혁총연(총회장 정삼업 목사)은 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우리제일교회(소에스터 목사)에서 ‘총회포럼’을 열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대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포럼에는 예장 개혁총연 전국노회 신구 임원과 목회자, 성도 100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장 정삼업 목사는 인사말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며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 대통령이 될 것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예장 개혁총연은 한국교회 30여 장로교단이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할 수 있는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특정교단이나 인물의 명예, 독단적인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 ‘대회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예장 개혁총연 전 총회장 배동률 목사는 설교에서 “진정 교회부흥을 원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 대답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면 전도가 잘되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천형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축도에서 “한국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 민족복음화, 복음통일의 역사를 이루나가야 한다”고 했다.

## “목회자 성추문 문제에 깊이 통회”

예장합동, 총회장 명의 성명서 발표 재발방지책 약속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이 최근 또 교회에서 불거진 목회자 성추문 문제에 대해 깊이 통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장합동은 8일 총회장 및 임원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목회자 성추문 문제로 부끄럽고도 가슴 아픈 일에 직면해 있다. 먼저 이 일로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한국교회 앞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도 교단의 대표자로 깊이 통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는 이번 사태를 주시하며 엄정한 사실규명을 통하여 해당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교단 내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루밍 성폭력’ 김모 목사 경찰, 출국금지 조치

경찰이 ‘그루밍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한 대형교회 김모 목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 단계를 넘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피해자 측과 접촉해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김 목사의 소재와 도주 가능성 등을 물었다고 한다. 김 목사 소재지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 목사는 현재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 “금권선거·성폭력 의혹 J 목사, 감독 사퇴하라”

기감 여성들 부글부글...조만간 공동대책위도 구성

금권 선거와 성폭력 의혹을 받는 J 목사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남연회 감독직 사퇴를 촉구하는 교단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감 여성교회전국연합회(여성교회·회장 백삼현 장로)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목회자는 불륜이나 간음, 성추행 등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사회법 판결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했다. 이어 “J 목사에게 제기된 성폭력 의혹만 25건이나 되는데 지속해서 ‘감독

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여성교회는 J 목사가 금권선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여성교회 서울남연회 일부 회원이 J 목사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교회, 성도 앞에 용서를 구하며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여성교회는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만큼 금권선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감 내부에서 이 문제 해결을

크리스천 여성 성우 모임 ‘시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시하자)와 우리제일교회 권사찬양단은 시 낭송과 찬양으로 행사장 분위기를 달랠 것이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하나 됨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가 이어졌다. 교회가 기록함을 회복하고 전도의 열정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 교회예식과 행정, 이단대책을 논의하며 교회 사랑의 결의도 다졌다.

푸른동산교회 진상철 목사는 ‘교회수호’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목회자는 교인에게 밥 한 끼 얻어먹고, 옷 한 벌 얻어 입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것 때문에 자칫 실족하고 교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며 “정확한 소재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정혜민 목사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회 인근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인천 한 대형교회 목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앞서 김 목사에게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4명과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김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10년간 자신이 담당하던 중고등부와 청년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 20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한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 인천 모처에서 정 목사를 만날 예정이다.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될 전망이다. 여성교회는 “교단이 공정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또 다른 교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감 여성단체들도 구성된 감리교여성연대(상임대표 홍보연)도 성명을 내고 “목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까지 저버리는 J 목사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기감 여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 영화 ‘바울’ 관객 11만명 돌파

불리한 환경서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영화 ‘바울’(감독 앤드루 하얏트)이 개봉 12일 만에 누적 관객 11만명을 돌파하며 선전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영화 ‘바울’은 지난 달 31일 개봉 첫날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개봉 8일 만에 5만 관객을 돌파한 것에 이어 지난주 ‘주말 전체 박스오피스’ 4위에 오르며 11만 관객을 돌파했다. 전체 영화 블록버스터들과 흥행 상승 곡선을 그리며 12일 현재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다.

상위에 매겨진 영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영관과 상영 횟수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눈길을 끈다. 관객들의 입소문 속에서 종교단체들의 관람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수입 및 배급을 맡은 CBS 관계자는 “기독교영화가 일반 영화 속에서 관객 10만명을 돌파한 것은

남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전파했던 인물이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평생 질병을 지니고 고통스럽게 살다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약한 중에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그의 곁을 지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 속에서 누가와 바울은 동지애, 형제애를 나누며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고 ‘모두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이 영화를 통해 복음 전파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과 메시지를 전한다.

영화 ‘왕좌의 게임’ ‘벤티’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연기파 배우 제임스 포크너가 사도 바울役に 분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역을 연기, 실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배우 제임스 카비첼이 바울의 동역자 누가 역을 연기하며 다시 한번 강력한 복음을 영화에 수놓는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탈 동성애 운동(ex-gay movement)’은 동성 간 관계를 시작하거나 추구하지 말라고 권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과거 게이나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밝힌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를 벗어난 체험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을 없애거나 역제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회원들은 이날 동성애 치유·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 “용서와 화해·회복과 치유의 주역으로”

‘피스메이커의 날 기념 콘퍼런스’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 기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기독교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서울 남서울교회에서 12일 열린 제16회 ‘피스메이커의 날 기념 콘퍼런스’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용서와 화해, 회복과 치유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새한국피스메이커(이사장 이철 목사)가 주최한 콘퍼런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전우택 연세대의대 교수는 “북한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기독교 신앙”이라면서 “남북 정상 의 포용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을 지난 전 교수는 정신의학자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연

구해 온 학자다.

전 교수는 말하는 용서와 화해는 역설적이게도 ‘서로 용서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남북은 전쟁과 분단의 시간 동안 서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너무 많이 쌓았다”면서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자는 명제만으로는 남북이 이를 극복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말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것만이 진정한 용서’라는 말을 실천해야 남북의 화해가 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 성경의 가르침을 뜻대로 삼자고 제안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37절을 연이어 인용한 전 교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와 ‘용

## 목사들이 꼭 알아야 할 법 지식은...

한국교회법학회, 교회법·세무 아카데미서 제시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는 12일 서울 강남구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에서 ‘교회법·세무 아카데미’를 열고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인 송기영 변호사 등이 강의했으며 전국에서 목회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 변호사는 우선 교인 명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회사들도 주주총회를 할 때마다 주주 명부를 정리한다”며 “교회가 소송에 휩쓸릴 경우 의결권을 지닌 교인의 특정 비율 이상이 표결했는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도 잘 정리해야 한다고 권했다. 그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철저히 녹취하는 것이 훗날 목사를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회 정관 정비도 미루지 말 것을 주문했다. 송 변호사는 “예를 들어 장로가 목사도 참석하지 않은 채 성도들을 소집해 회의를 여는 경우가 있다”며 “당회는 꼭 목사가 열도록 하고 회의 참석자 자격을 정관에 명시해 놓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



# 선교의 상 (113)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 선교적 병목현상에 대한 원인과 타개책

오늘 우리 기독교의 선교는 심각한 병목현상 가운데 있다. 선교사들은 모두가 하나 같이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후방의 교회는 그래도 많은 영적, 인적, 물질 선교자원을 가지고 있다. 허나 어찌된 일인지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되고 딱 막혀 있다. 이러한 역사는 초대 교회 300년을 빼고 지난 2천년 간 지속해왔다. 그것은 교회의 관제적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면서 사역자와 평신도라는 이원론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로써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선교사라는 대표선수 몇 명을 보내고 느긋하게 뒷집을 지고 왔다. 그 결과 선교의 확장성을 더디었으며 복음화율도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했다. 주님의 지상명령! 이 사명완수를 위해서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체질 변화를 해야 한다.

전 세계 5대양 6대륙에서는 수많은 선교적 요청이 있다. 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후방의 막대한 선교자원이 현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교한국을 주도해왔던 관계자의 집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교회 중 15%정도만인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교회와 선교지 사이에 심각한 병목현상이 세계선교를 가로막고 있다.

### 2. 선교적 병목현상의 주된 원인

병목현상은 폭이 병목처럼 좁아진 곳에서 일어나는 정체를 말한다.

선교는 교회와 선교지 사이의 병목현상을 뚫지 않는 한 소망이 없다.

사도행전 적 교회는 잠재 된 모든 자원을 선교적으로 동원한 공동체이다.

선교는 결코 교회의 여러 기능 중 하나가 아니라 존재론적 사명이다. 그러므로 미래선교의 관건은 교회와 선교지간의 병목현상을 뚫고 성도들을 얼마나 선교적으로 동원되느냐에 달려있다.

### 1. 병목현상(Bottleneck)의 선교적 실제

병목현상이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나 용량이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인해 제한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병목"이라는 용어는 "지니고 있는 것이 물"이라는 비유에서 가져온 것이다. 물이 병 밖으로 빠져나갈 때 흐르는 속도는 빠져나가는 관의 너비에 비례한다. 병은 일반적으로 목 부분이 좁아 물이나 액체를 따를 때 갑자기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병의 크기가 커도 목 부분이 작으면 흘러나오는 액체는 제한을 받게 된다.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효율의 저하를 초래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한다. 병목 현상의 대표적 사례는 교통에서 나타난다. 이틀터널 좁은 다리나 터널, 도로 공사, 톨게이트 등으로 인해 차가 특정 부분부터 대폭 줄어들어 발생하는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선교적으로 대비해볼 수 있다.

교회의 선교동원은 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통해 배출된다. 문제는 신학교의 학습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신학의 자리는 실천신학의 한 끝부분에 있다. 미국의 모 신학교 M. Div 과정을 보면 필수과목 70학점과 선택과목 18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학은 필수 과목이되 오직 3 학점뿐이다. 이렇게 신학은 그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강의도 대부분 현장 경험이 없는 교수들에 의해 사변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바른 선교신학의 부재는 오늘날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 비정상적인 선교구조를 만들어 왔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중심의 선교(church-centered mission)에서 선교 중심의 교회(mission-centered church)로 전환하는 일이다. 선교는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우리는 교회와 선교(church and mission)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교(mission of church)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교회와 선교’를 이야기 할 때는 교

회 전체가 선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교회 전체가 선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교는 교회 안에 몇몇 사람의 열심이나 교회 부흥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병목현상의 원인을 보면 선교 동원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왔다. 크고 작은 선교대회와 선교여행 등을 통해 작지 않는 수의 헌신자들이 나왔다. 그러나 동원된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사후양육 될 수 있는 2차, 3차 동원이 부재하였다. 대부분 집회가 일회적이고 선동적이었다. 산모가 아기를 낳기만 하고 키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간 한인 교회는 헌신된 선교사원들을 구체적으로 돌보고 훈련하며 파송하기까지 세밀한 역할을 소홀히 했다. 또한 선교동원과 관련된 교회, 학생단체, 선교단체 각 구조 간의 이해 부족과 상호 존중 및 연합의식의 결여되어 있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선교에 일생을 드리기로 헌신했던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헌신을 포기해 버리는 갈래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3. 새로운 대안

첫째, 신학교 안에서 건강한 선교신학이 발전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선교학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수준의 학점 안배로는 장차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선교학을 실천신학에서 떼어 독립적 영역으로 확보하고 강조되도록 선교사 출신의 실력자들로 재배치해야 한다.

둘째, 교회가 선교적 교회 구조로 갱신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선교에 신학적 재정립이 시급하다. 선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너무 부재하다. 선교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목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몇몇 선교 명령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만 소개됨으로서 선교가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로만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선교신학의 재정립과 병행해 선교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가르쳐지고 실제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셋째, 평신도들을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독려하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것이다. 물론 예후도 목회자 출신 선교사와 대등한 자격으로 하는 것이다. 한인교회는 그동안 목회자 출신 선교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선교현장에서도 평신도 선교사들은 웬지 기가 죽고 열등의식이 있어왔다. 이러한 선교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어야 한다.

실제 서구 선교 기관에서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비율이 70% 이상이다. 리더십은 목회자 선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선교 경력 많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한국 선교가 살아나려면 이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주력부대로

해서 목회자 출신 선교사와 팀워크를 이루게 해야 한다.

### 맺음 말

2030년까지 10만 정병, 100만 자비량 선교사! 이(Catchphrase)는 KWMA가 한민족 교회 앞에 내건 당찬 구호이다. 과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지금의 한인교회 정황으로는 아무래도 회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선교의 주된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교회들을 선교적으로 뒤집을 것이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전략이나 이론보다는 영적각성과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1848년 영국의 캠핑 브리지 대학생들의 기도모임과 1806년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회(Haystack Prayer Meeting)가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6만여 한인교회가 오랜 동안 관행으로 문제의식 없이 내려온 선교적 병목현상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야 한다. 이는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함이다

jsong007@hanmail.net

## 선교 펴기

### 우간다

가난한 자의 교회, 상처받은 자들의 교회, 장애인들에게 열린교회

3개월 전 시작된 교회공사가 완공되어 10월 28일 첫 입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기적"을 보는 것 같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어두운 마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날 입당 예배에 한 참석자 장애인 여성은 목이 메이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장애와 에이즈로 인해 가족에게 버림받고 어둠에 갇혀 지낸 세월이 오래 인데 장애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 가운데 뛰어가 끌어안고 찬미를 함께 읊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해 모든 계단을 없애고 램프시설과 장애인석을 두었습니다.

이 교회는 가난한 자, 상처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열린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 저주가 아닌 축복의 집으로...House of Bless 축복의 집 1호

마태오는(16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넷째 막내아들로 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세 아들이 모두 질병과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3년전 남편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불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흔히 장애는 죄로 인해 저주로 온다는 주님 사선이 엄마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 마태오를 만났을 때 그는 주방 한 칸 흠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도 전기도 없이 열악한 삶 속에 대 소변을 해결할 수 없어 하루 종일 흠바닥에 눕혀놓고 오직 저녁이 되어서야 흡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14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 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213)227-1400 / Fax: (21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아예배(영아-금): 오전 5:30 토요일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Fax: (562)695-0046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A Irvine, CA 90026 facebook.com/srcca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후 11:00 영아전 (영아:KDC, 킹덤드림센터) 주일 학교: 오전 9:20 2부: 오전 9: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ic.org	<b>대중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714)719-2244, Fax: (714)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c.org	<b>디아스포라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여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일 학교: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델인교회</b>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ic.org	<b>LA 복음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 김효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교회</b> 담임목사 : 정상기 주일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저녁 11:0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818)634-2315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b>얼바인침례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일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310)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안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성경기도회: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b>중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ccasamsungchurch.com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 요 예 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EM) 주일예배: 오후 2:00(청년) 침례예배: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cornestonev.com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3303	<b>토런스노교회</b>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예배: 오후 2:00(청년) 침례예배: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 펴기

니카라과

2019 Nicaragua 전도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 주관으로 지난 2008년부터 거행해 온 마사야전도대회는 2018년 올해 그 지경을 넓혀서

수도인 Managua 남서부 지역인 San Rafael del Sur 지역과 Masaya 주를 대상으로 전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회째 전도대회를 맞게 되는 2019년에는 Masaya 주보다도

면적도 더 크고 인구도 많은 Carazo 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시작된 니카라과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과연 내년에 니카라과에서 전도대회를 개최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도 크신 줄 압니다만 비록 겉으로나마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많은 아픔을 겪은 내외적인 상처를 말씀과 섬김으로 감싸주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11월 6일과 7일 Carazo 주의 주청소재지인 Jinotepe에서 목회자들과 리더들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전도대회를 위한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뉴욕노회 김종훈 목사(전도대회를 준비하는 영성) 노성보 목사(전도대회를 준비하는 기도) 우영주 목사(어떻게 전도해야하나? 전도 실습)가 설교와 기도, 그리고 전도 실습 등 실질적인 2019 전도대회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특히 큰 시련 가운데 처한 니카라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기에 큰 영적인 무장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11월 13일 Carazo 주 7개 시목회자 회장단과의 모임을 거쳐서 2019년 11월 중순까지 전도도원 훈련을 마치고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도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는 △대통령 재가 사함인 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져 15,000명 회집이 1,000명의 심령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전도대회에 나타나도록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목회자 세미나/ 교사강습회/ 개인전도/ 중보기도/ 한방사역/ 치과사역/ 안경사역/ 네일사역/ 미용사역/ 어린이사역 등) △단기팀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Nicaragua para Cristo! Carazo para Cristo! 니카라과를 그리스도에게로! 까라소를 그리스도에게로!

2018년 11월 9일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뉴욕실버미션 온두라스 단기선교  
11월 5-10일, 의료 한방 안경 사진 이미용 VBS 사역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은 2018년 두 번째 단기선교가 온두라스 우라코(황충열 선교사) 지역에서 진행됐다. 뉴욕실버스쿨에서 훈련된 25명의 실버선교사들이 참여했다.



선교팀은 8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주만에 걸쳐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선교지에 머물면서 의료, 한방, 안경, 사진, 이미용, VBS(어린이사역)을 통해 총 2,983명을 케어 했다. 또 건축 중인 선교센터에 현금을 전달했다. 우라코는 황충열 선교사가 13년 전에 개척한 선교지로 11에이커 부지에 학교사역을 통해 현재 4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우리는 온두라스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황 선교사는 현재 고등학교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교의 신학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했다.

▲연락처: (917)963-9356 김경열 뉴욕실버미션 훈련원장

<13면에서 계속>

마태오가 이런 어둠 가운데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은 마태오의 그 깊은 어둠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 믿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태오와 엄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오 가정으로 인해 “House of Bless” 축복의 집짓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신혼부부 가정의 통해 감사로 드러진 헌금으로 “축복의 집 1호”가 완성되었습니다. 보기에 호화롭고 아름다운 집은 아니지만 마태오와 엄마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의 장막이요 “축복의 집”입니다. 이 땅 누군가에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 한 칸을 마련해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아닐까요?

God's Family +1? 하나님 나라 영적자녀들!

God's Family +1 사역이 시작되면서 현재 12명의 우간다 어린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크리스천 스쿨

을 통해 교육을 받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God's Family +1 사역은 부모가

없거나 혹은 질병과 장애로 자녀를 교육할 수 없는 어려운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한 가족으로 품고 하나님 나라 가족 되는 사역입니다.

12명의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낱아준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했지만 현재 GOD'S FAMILY 를 통해 다시 웃음을 찾았고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특별히 GOD'S FAMILY +1 영적 자녀들은 정기적인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군사로 훈련될 수 있도록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God's family +1 사역을 통해 교육비, 음식지원, 약값 혹은 치료비를 돕고 있습니다.

10월 한국 장애인 인권 기관에서 우간다 탐방 및 리서치를 위한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시아 지역 장애인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부시아 디스트릭 특수 교육팀과 미팅을 통해 우간다 장애인들의 교육과 어려운 삶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시아 현지 식당에서 돼지고기 볶음요리와 함께 수수가루를 문쳐서 만들

카를을 먹으며 정부 관계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 했습니다.

Family time!

군대간 아들 보러가는 기본으로 밥세 음식을 준비하여 자동차 가득 싣고 케냐 기숙학교에서 공부하는 다니엘과 에셀이를 만나 4일간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치를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12시간 달려온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성숙해지고 자란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눈물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간다 장애선교 기도제목! 기도의 손을 모아 주세요.

1. 프렌드십 빌리지에 세워진 교회가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장애인들에게 회복의 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God's family 믿음의 영적 가족들을 통해 우간다 연약한 가정들이 소망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우간다 “마사바 드립 특수학교”를 위한 필요한 재정, 건축팀이 구성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장애인 가정 교회가 각 지역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 “House of Bless” 집짓기 사역을 통해 고통 당하는 장애인들에게 “축복의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민수 선교사  
SON Ministries GMAN E-mail:  
ugandadm@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의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호흡곤란

심한 호흡곤란이 갑자기 오면 응급 상황

숨이 찬 증상이 시작될 때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60대 중반의 여성 박씨는 지난 3개월 동안 호흡곤란을 느꼈다. 특히 운동을 할 때 호흡곤란이 더욱 심했고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매우 숨이 찼다...

숨이 찬 증상을 느끼는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서 느낄 수도 있지만 충분한 산소가 혈액 중으로 들어와도 인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호흡곤란 증상을 느낄 수 있다.

폐는 크게 보면 산소의 이동통로인 기관지가 있고, 산소가 교환되는 폐실질이 있는데 만성 기관지염이나 천식과 같이 기관지가 좁아져서 산소의 이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숨이 찰 수 있다.

심장의 이상으로 숨이 찬 경우는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지면서 혈액이 폐에 고여서 숨이 찰 수도 있고(수축성 심부전), 심근의 수축력은 정상이지만 심장 벽이 두꺼워지면서 심근이 확장이 안 돼서 생기는 이완성 심부전이 있다.

호흡곤란이 오면 응급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폐혈관을 찢어버려서 막는 급성 폐전색, 중증 천식이나 급성 심근경색 등은 사망률이 높은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 치료가 필요하다.

굳어지면서 생긴다. 이처럼 심장이나 폐의 이상으로 숨이 찬 경우는 산소가 혈중으로 적게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다.

호흡곤란은 심장이나 폐의 이상 때문에 대기 중의 산소가 혈중으로 충분히 유입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는 이상이 없고 혈중의 충분한 산소가 있어도 숨이 찰 수 있다.

장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하지골절 등으로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근육의 위축이 심해져 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장기의 이상 없이도 숨이 찬 것을 볼 수 있다.

호흡 곤란은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므로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관지 천식이나 흡연으로 인해서 흔히 생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는 담배를 끊고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흡입제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

심장이상 때문에 숨이 찬 때는 이노제 등으로 임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함으로써 심장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갑자기 심한 호흡곤란이 올 때는 응급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폐혈관을 찢어버려서 막는 급성 폐전색, 중증 천식이나 급성 심근경색 등은 사망률이 높은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 치료가 필요하다.

소망소사이어티, LA 알츠하이머협회와 MOU 맺어

웰 비잉, 웰 에이징, 웰 다잉의 비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9일 LA 알츠하이머협회 사무실에서 LA 알츠하이머협회와 MOU를 맺었다.

한인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날로 늘어가고 있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확대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는 지난 8월, 알츠하이머 오렌지협회와 MOU를 맺은 데 이어 한인커뮤니티가 크게 형성돼 있는 LA 한인 지역에 도 그 필요성이 요구돼 이번 MOU를 맺게 됐다고 했다.

MOU 행사는 최경철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의 사회로 유분자 이사장의 인사말과 허더 오트너 회장의 인사말, 그리고 김완중 LA총영사의 인사말, 두 대표의 사인식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김완중 총영사는 한인사회의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두 단체가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LA 총영사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참석하게 되었다고 인사하며, 두 단체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의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모임으로 시작된다 한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첫 번째 모임은 12월 11일에 LA 알츠하이머협회 사무실(4221 Wilshire Blvd, Ste 400, LA)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실(6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직분에 대한 감격(딤후1:12-14)찬503장

에베소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사도는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르칩니다. 이 소명이 그의 삶 뿐 아니라 그의 목회사역의 효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것은 그가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은혜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셋째, 풍성한 은혜의식을 요구합니다(14).

화 바울이 깨달은 복음(딤후1:15-17)찬405장

바울이 받아 깨달은 복음은 교회봉사의 중심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도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15).

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주 임무입니다. 셋째, 영생 얻을 자의 분이 되게 하십니다(16-17).

수 믿음의 선한 싸움(딤후1:18-20)찬387장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삶은 선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우리를 은혜로 견고하게 합니다. 진리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진리의 깨달음이 일어날 때 생깁니다.

목 기도중심사역(딤후2:1-5)찬482장

교회사역은 바른 교훈인 복음 위에 서서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첫째, 왜 믿는가 기도입니까?(1) 믿음의 삶은 기도로 증거되고 기도로 나아가 계속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 위정자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목회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금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딤후1:5)찬190장

교회 사역은 소명 받은 목사가 중심이 돼 행하지만 사실상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행하는 사역입니다. 왜냐? 첫째, 그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5).

있습니다. 셋째, 그만이 영원한 효과를 가지신 중보자이신(6-7). 능력이 많고 주권자라 해서 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토 기도하는 남자교인(딤후1:8)찬177장

교회 구성원은 천사가 아닌 선택받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가 재창조된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드립니다. 자아를 부인한 자가 그리스도의 남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Kumnan Church, Dundeon Church, Roman Catholic Church, etc.



감사절 축하 광고

# Happy Thanksgiving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찌어다 (시 105:1)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장요섭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적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 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el. (310)325-4020  
Fax.(310)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